

2026-2

예그리나 제33호



ЕГРИНА

발 행 제성훈
편 집 조현준(박사과정 3학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 E L 02-2173-2556
홈페이지 ruscis.hufs.ac.kr



목차

러시아-CIS학과 소개	3
I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6
II 2026학년도 2학기에는	
재학생 현황	18
신입생 소개	28
개설강의 소개	32
III 원우 수기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38
IV 학과 관련 정보	
학술 동정	50
2026-2 교수진	91
졸업생 취업 현황	94

러시아-CIS학과 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1996년 교육부 선정 국책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기원은 1970년 국내 대학원 최초로 개설된 ‘동구지역연구학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당 학과는 소련 및 동유럽 공산권 국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학과명을 변경해왔습니다. 2006년부터는 ‘러시아·CIS학과’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러시아·CIS학과는 러시아를 비롯한 탈소비에트 지역의 15개 독립국을 대상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로,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전문가를 꾸준히 배출해 왔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역사, 문화 등 다층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역 연구를 심화하며,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러시아와 CIS 지역이 차지하는 전략적 위상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는 러시아와 탈소비에트 공간을 둘러싼 역학 관계를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전문적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격변 속에서 러시아·CIS학과는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며,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이슈를 연구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적 탐구의 장에 발을 디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을 통찰하고 그 이면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여정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기르고자 하는 여러분의 선택은, 우리 학과가 지닌 학문적 깊이와 실천적 가치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 (Транссибирская магистраль)

I 지난 학기를 돌아보며

-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날짜	연사	강의내용
2026년 3월 27일	현승수 통일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러시아의 지정학
		푸틴의 대전략과 한반도
2026년 4월 10일	염동호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원장	지역연구와 경제사
		경제제도와 경제발전
2026년 5월 8일	윤성욱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EU의 헤어질 결심: 대서양 동맹의 운명
		모순이 공존하는 세계: 외교 전략의 전환
2026년 5월 15일	정재훈 전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인 부법인장	4차원적 정치 엘리트-체제 유형법
		유라시아 엘리트 연구방법론
2026년 5월 22일	우경봉 한국방송대 무역학과 교수	일본 경제의 성장(1945~90)
		일본 경제의 침체(1990~2010)

날짜	연사	강의내용
2026년 5월 27일	이지은 한국외대 중아시아학과 교수	지정학적 지각변동과 중앙아시아 비상 2018년 이후 역내 다자협력 활성화의 배경과 요인 분석
2026년 6월 19일	제4차 러시아·CIS학과 정기학술대회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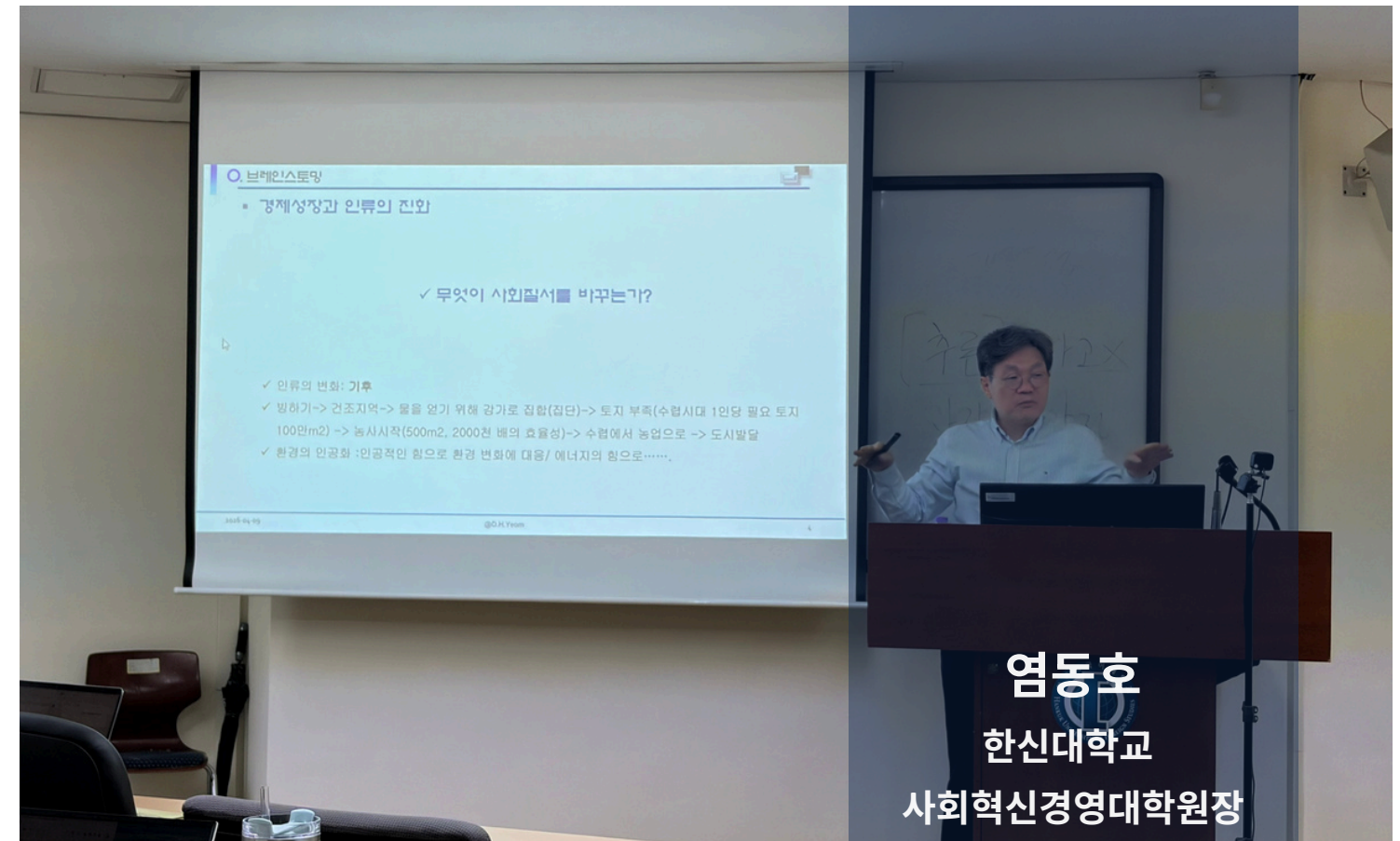


2026년 3월 27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제2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현승수 통일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제1강 ‘러시아의 지정학’, 제2강 ‘푸틴의 대전략과 한반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은 러시아 지정학의 이론적 배경으로 알렉산드르 두긴의 지정학 이론을 소개하며, 푸틴의 대전략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넘어 러시아 중심의 다극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승수 원장 직무대행은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국가 전체가 아닌 푸틴 개인의 대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푸틴 체제가 유지되는 한 현재의 전략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정세를 해석할 때는 단순한 정보 습득보다 구조를 읽는 분석적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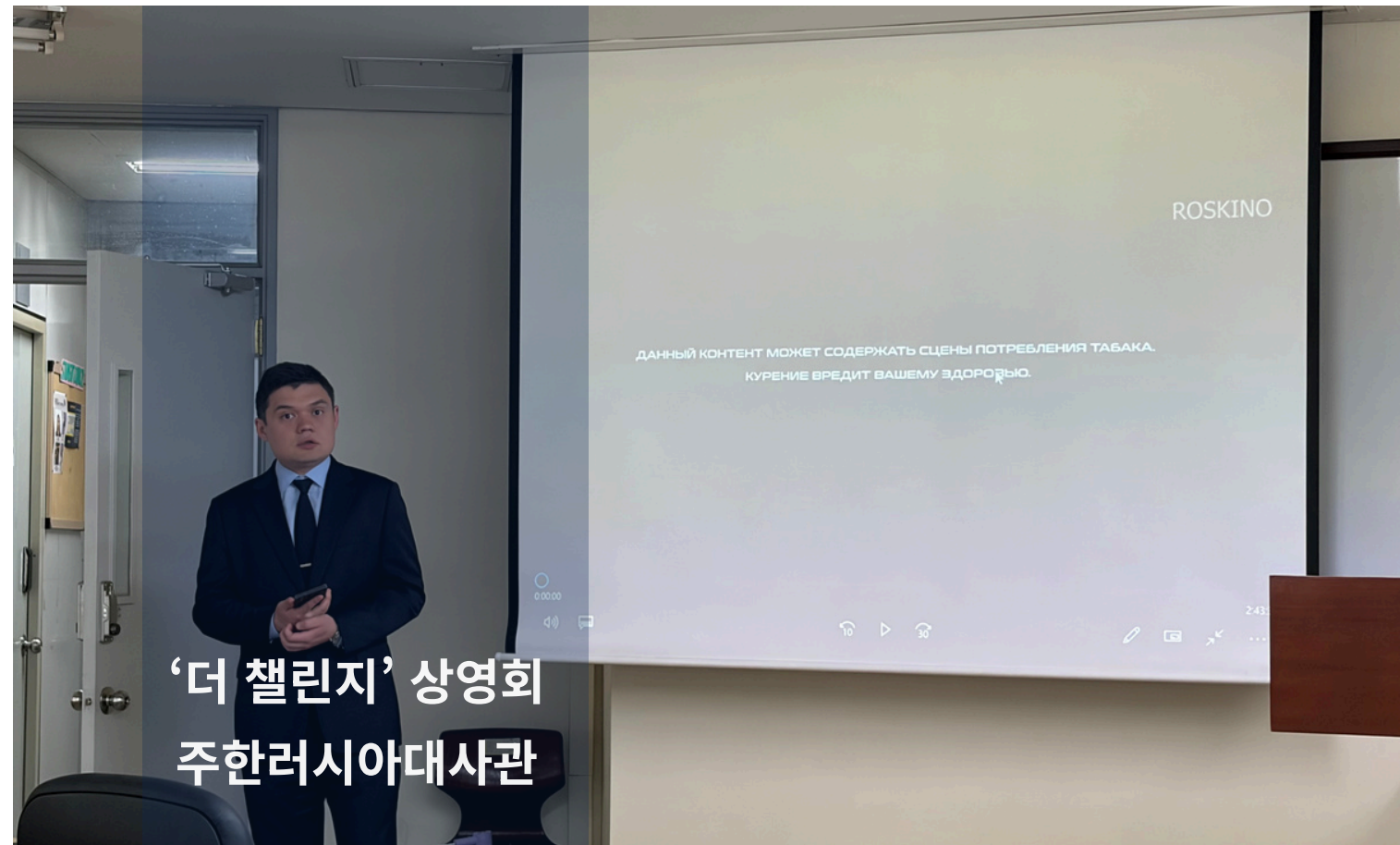


2026년 4월 10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제3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염동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장은 ‘지역연구와 경제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염동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장은 경제사를 과거의 경제 변화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으로 설명하며, 산업혁명의 역사와 AI 시대를 예로 들어 구조와 제도의 장기적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연구 역시 단편적인 지표보다 역사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염동호 원장은 계량경제사와 제도경제학 등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며, 기술과 제도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과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과학자는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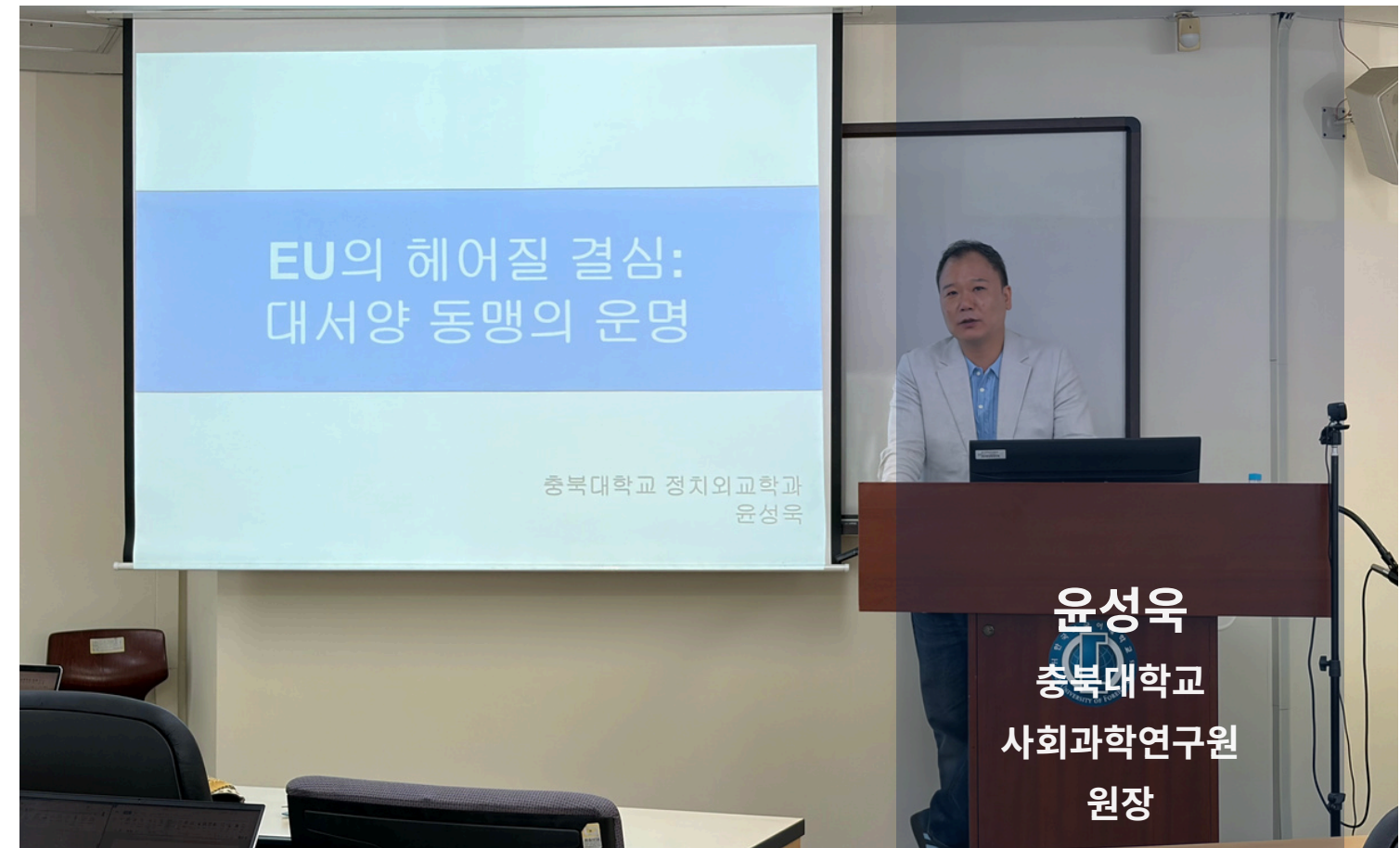


2026년 4월 17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주한 러시아대사관의 후원으로 러시아 영화 『더 챌린지(The Challenge)』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러시아대사관 키릴 우소프(Kirill Usov) 서기관이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러시아 문화와 영화 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키릴 우소프 서기관은 상영에 앞서 『더 챌린지』가 세계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실제 촬영된 장편영화로서 러시아 영화 산업의 기술력과 도전 정신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영화를 통해 우주 개발뿐 아니라 러시아의 과학기술과 문화적 성취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 상영 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

키릴 우소프 서기관은 영화 제작 과정과 러시아 우주개발의 역사, 러시아 영화 산업의 최근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번 행사는 러시아 영화를 매개로 러시아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문화행사로 마무리되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6년 5월 8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제5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윤성욱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이자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원장은 제1강 ‘EU의 헤어질 결심: 대서양 동맹의 운명’, 제2강 ‘모순이 공존하는 세계: 외교 전략의 전환’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성욱 원장은 제1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NATO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점차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9·11 테러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측의 전략적 인식 차이가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 전환과 NATO 방위비 분담 논쟁 등을 계기로 기존 동맹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2강에서 윤성욱 원장은 오늘날 국제질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미국과 중국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국가들은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과 전략적 자율성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성욱 원장은 국제질서가 다층적이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동맹과 외교 전략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들은 복합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정재훈
전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인
부법인장

2026년 5월 15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제6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정재훈 전 신한은행 카자흐스탄 법인 부법인장은 ‘러시아 은행은 돈을 어떻게 굴리나: 러시아·CIS 국가 금융의 작동 원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재훈 전 부법인장은 미국, 한국, 러시아·CIS 금융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중심으로 각국 금융시스템의 특징을 설명했다. 미국은 시장의 자율성과 높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은 은행 중심의 안정적인 금융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CIS 금융시장은 국가의 개입이 큰 특징을 보이며, 환율과 제재, 자본통제 등 정치·외교적 요인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재훈 전 부법인장은 러시아·CIS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투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소개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금리는 투자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환율 변동성과 자본 회수 위험, 국제 제재와 같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CIS 지역의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제도, 국가전략을 함께 살펴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재훈 전 부법인장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금융시장은 한국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은 새로운 진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어와 금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인재를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러시아·CIS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를 당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2026년 5월 22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제7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우경봉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제1강 ‘일본 경제의 고도성장 메커니즘과 동인’, 제2강 ‘일본 경제의 침체 원인과 CIS 국가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우경봉 교수는 제1강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우경봉 교수는 일본의 경제성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한국 전쟁 특수와 미국의 지원 등 국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축적이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강에서 우경봉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을 분석하며, 혁신 둔화와 생산성 정체, 이른바 '좀비 기업'의 지속이 일본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원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CIS 국가들 역시 일본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기술혁신과 산업 다변화,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경봉 교수는 경제 발전의 성공 모델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한국과 CIS 국가 모두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2026년 1학기 러시아-CIS 전문가 초청 특강



2026년 5월 29일(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는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소장 최우익 교수) HK+ 연구사업단의 후원으로 제8차 러시아·CIS 지역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초청 연사로 모신 이지은 한국외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지정학적 지각변동과 중앙아시아 비상 - 2018년 이후 역내 다자협력 활성화의 배경과 요인 분석: 강대국의 체스말에서, 다자협력의 설계자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지은 교수는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내륙국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독립 이후에도 자율적인 지역협력을 구축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설 협의체의 부재와 국경·수자원 갈등, 외부 강대국 중심의 질서가 역내 다자협력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지은 교수는 2018년을 중앙아시아 역내 협력의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이후 추진된 개방적 대외정책이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외부 강대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차원의 협력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지은 교수는 중앙아시아의 다자협력은 단순한 지역협력을 넘어 강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외부 의존도를 완화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강대국의 영향력 속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제는 스스로 협력 질서를 설계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알타이 산맥 (Алтайские горы)

II 2026학년도 2학기에는

- 재학생 현황
- 신입생 소개
- 개설 강의 소개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석사과정



이혜나

출신학교
강남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지역 정치, 외교, 안보



장지호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북-러 관계



변경아

출신학교
경기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및 국제 교류

장여진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지역 정치 및 외교



박상진

출신학교
선문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안보 및 정치



손민정

출신학교
연세대학교
관심분야
개발협력



석사과정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석사과정



채지은

출신학교
국민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정치 및 사회문화



최종원

출신학교
세종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자동차 산업



**Abdurahimova
Shukrona**

출신학교
타지키스탄 사범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지역 사회문화

석사과정



최재영

출신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안보 정책 및 국방



서호수

출신학교
경희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투자 및 경제협력



김연우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경제구조 및 대외무역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석사과정



박성주

출신학교
국민대학교
관심분야
탈러시아화와 지역정세 변화



윤신혜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 안보 및 정치

박사과정



Zagnibida Victoria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북-러 관계,
러시아 대 동북아 정책



Shin Nadezhda

출신학교
연세대학교
관심분야
사회문화적 변화, 정체성, 이주



조현준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분쟁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재학생 현황

박사과정



김선아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우크라이나 지역학



김애리

출신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관심분야
한-러 관계, 러시아 외교 정책



문영일

출신학교
고려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철도 분야

박사과정



정재훈

출신학교
모스크바국립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은행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신입생 소개

석사과정



전완희

출신학교
모스크바국립대학교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경제 및 국제관계

| 자기소개 및 입학후 포부 |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2학기 러시아·CIS학과 신입생 전완희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차별화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러시아 유학을 떠났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보낸 5년여의 시간은 단순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경험을 넘어, 러시아를 깊이 이해하고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경제제재,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지켜보며 경제와 산업, 외교와 안보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국제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현재 KDI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국내외 학술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과 연구가 실제 현장에서 연결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국제정세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목표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러시아·CIS 지역을 국제관계는 물론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도 폭넓게 연구하며 전문성을 쌓고 싶습니다.

교수님들과 동기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원 생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개설 강의 소개

과목명	교수	소개
러시아CIS인문 및 자연지리탐구	홍완석	러시아 및 CIS지역 연구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연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영토의 크기가 주는 국가발전의 기회와 제약성 그리고 민족, 언어, 인구, 자원, 산업지대 등 인문 환경의 조건을 고찰한다.
러시아경제론	이상준	본 교과목은 경제발전론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성장 메커니즘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 체제전환, 푸틴 정부에 이르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발전 경로를 살펴보고, 노동·자본·생산성·제도 등 경제성장의 기본 요인을 이해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역할, 산업정책, 국영기업, 에너지 산업, 지역개발, 거시경제와 대외경제협력, 노동시장과 인구구조, 기술혁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경제제재와 경제안보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경제학적 이론과 지역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러시아 경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경제성장과 국가전략, 지정학, 국제질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학습한다. 나아가 러시아 사례를 한국 및 다른 발전국가와 비교함으로써 국가주도 발전전략,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기술 주권 등 현대 국제경제의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의 대외경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과목명	교수	소개
러시아-CIS 특강	제성훈	This course is offered with the support of the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s part of the Academic Next-Generation Training Program. It invites lea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perts and scholars on Russia and the CIS region, and aims to enhance student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gion through practice- and experience-oriented lectures and discussions rather than purely theoretical approaches.
러시아문화론	박선영	본 교과목은 러시아 문화의 특수성을 ‘이중성’과 ‘대화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키예프 루시의 기독교 수용 이후 정교회와 토착 민간 신앙이 공존한 이중 신앙, 러시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빚어진 슬라브주의와 서구주의 논쟁, 서구화로 인한 귀족 문화와 민중 문화의 이중 구조, 사회 담론을 이끌어갔던 문학중심주의적 경향, 소비에트 시대의 공식 문화와 비공식 문화의 이중 구조, 그리고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로트만의 문화 기호학을 차례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문화를 애국주의와 ‘소비에트 노스탤지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과거의 문화적 기호들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재기호화되는지 이해하게 된다.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개설 강의 소개

과목명	교수	소개
러시아와 동북아 국제관계	박병인	본 강의는 러시아의 역사적 경험, 지정학적 조건과 대외 전략을 기초로 러시아와 동북아 국제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러시아와 소련을 거쳐 러시아연방에 이르는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변화를 살펴보고, 푸틴 시대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다극체제 구상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중국, 러시아-한반도, 러시아-북한, 러시아-일본 관계와 러시아의 극동·북극 전략을 검토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중·러 협력과 한·미·일 협력, 미·중 전략경쟁, 에너지·경제안보 등 동북아 국제질서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학생들이 러시아의 시각과 한국 및 서방의 시각을 비교하고, 향후 동북아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러시아 전략을 독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학습목표로 한다.
러시아정치세미나	제성훈	Цель курса — систематическое изуч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процессов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об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е у магистрантов и аспирантов академических компетенций, необходимых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полит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написа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онных работ.

과목명	교수	소개
산업혁명의 역사와 러시아경제	이대식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gan in Britain in the 18th century, stands as one of the most decisive turning points in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This course systematically examines the history of world industrial development from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late 18th century)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1st century), and critically analyzes the historical trajectory and role of the Russian economy throughout this process. By situating Imperial Russia's belated industrialization, the Soviet Union's forced industrialization, and the post-Cold War market transition within the broader context of global industrial history, students will develop a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Russian economy and its posi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industrial order.
세계경제와 유라시아	박정호	Основная цель данного курса заключается в анализе влияния ключевых проблем Евразии на мировую экономику и выводов, которые из этог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частности, этот курс поможет развить навыки анализа конкретных проблем Евразии на основе всестороннего понимания геополитики, геоэкономики и самого евразийского региона.

2026년 2학기 러시아-CIS학과 개설 강의 소개

과목명	교수	소개
중앙아시아 국가체제연구	이지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건설과 정치발전 경로를 짚어보면서 오늘날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을 이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크게 4 분야의 주제를 제시한다. 첫째, 독립 이후 체제 이행과 권위주의의 다변화, 둘째, 통치 메커니즘과 비공식 제도, 셋째, 멀티벡터 외교정책과 주요 지역기구, 넷째, 기후변화/자원/인프라 안보. 주제별로 각 3주씩 할애하여 진행 예정이며, 수업은 강의 + 사례연구 세미나(학생 발제 및 토의) 방식이다.



바이칼 호수 (Озеро Байкал)

III 원우 수기



-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박부병(정치학 석사)
 - 우제민(정치학 석사)
 - 엄동재(정치학 석사)
 - 아이슬루 아미로바(정치학 석사)
 - 아이스 샤이쿨로바(정치학 석사)
 - 채병수(경제학 석사)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존재론적 안보 이론으로 분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푸틴 담론(2000-2022)의 Word2Vec 중심으로

박부병

출신학교
극동연방대학교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정치 및
안보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졸업하는 석사과정 박부병입니다.

2024년 9월, '잘 졸업할 수 있을까, 논문은 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안고 입학했습니다. 입학할 때는 아득하게만 느껴졌던 2년이 어느새 흘러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대학원에서의 시간은 유난히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 곧 다음 학기가 시작되는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덧 마지막 학기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 보니 최종심사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을 지나오며 조금은 단단해졌다고 느낍니다.

공부를 할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를 알고 나면 그 뒤에 모르는 것 열 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족한 점만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 자체가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증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은 무언가를 완성한 시간이라기보다 앞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시간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마다 저를 붙들어 준 것은 언제나 곁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홍완석 교수님, 제성훈 교수님을 비롯한 러시아·CIS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업에서, 또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 건네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공부의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교수님들께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습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최원근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타과 학생인 저를 지도학생으로 받아 주시고 늘 따뜻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논문이 막혀 찾아볼 때마다 방향을 다시 세워 주셨고, 최종심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해 있던 저를 격려해 주신 덕분에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한 원우 한 분 한 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발표를 앞두고 함께 고민해 주고 지쳐 있을 때 밥 한 끼 하자며 불러내 주던 시간들, 그리고 건네주신 따뜻한 말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고 대학원에서 배운 마음 그대로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서도 배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러시아 정책결정자의 국가 역할 구상과 대북정책의 변화



우제민

출신학교
극동연방대학교관심분야
한-러 관계, 국제관계

안녕하세요. 2026년 8월에 졸업하게 된 우제민입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졸업자 수기로 갈음해봅니다.

저에게 러시아·CIS 학과에서 공부했던 2년은 마냥 짧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닌, 삶을 대하는 자세, 수많은 인간관계에 대처하는 법,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러·북러 관계일지, 특강 요약을 맡으며 작지만 학과에 보탬이 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신문 기사를 읽으며 변화하는 정세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고, 번거롭기도 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학과에 대한 애정으로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득한 지식은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하기까지 많은 선배, 후배, 그리고 동기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과제를 붙잡고 씨름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격려하던 순간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값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주어진 시간 안에 졸업할 수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CIS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앞으로 마주할 어떤 자리에서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보내준 모든 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시절 맺은 소중한 인연들을, 앞으로도 오래도록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러시아-벨라루스 국가통합의 과정과 요인 - 지도자 요인을 중심으로



엄동재

출신학교
계명대학교관심분야
러시아-CIS 정치 및 외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에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석사과정이 제게 어떤 시간으로 남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CIS 지역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과정을 시작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이곳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오래 붙들고 고민하는 법과,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법을 배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생각했던 것보다 길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뿐 아니라, 시기마다 달라지는 양국 관계를 하나의 논리로 연결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정리했다고 생각한 부분을 재검토해야 했고, 논문의 구성과 이론적 틀도 여러 차례 수정해야 했습니다. 연구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는 방향을 잃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자료를 살피고 질문을 가다듬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연구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끝까지 지도해 주신 지도교수님, 논문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심한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업과 발표를 통해 새로운 관점을 열어 주신 교수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었던 원우님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힘든 시기에 건네받은 따뜻한 격려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되었고, 함께한 사람들 덕분에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국제지역대학원에서 보낸 시간은 제게 단순히 학위를 얻기 위한 과정 이상의 의미로 남았습니다. 한 차례 뜻대로 되지 않았던 순간을 지나 마침내 논문을 완성한 경험은 앞으로 새로운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도 저를 지탱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곳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우리 학과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잊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또한 한러 관계와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를 꾸준히 공부하며,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러시아 자동차 산업 공급망 변화 연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를 중심으로

채병수

출신학교
고려대학교관심분야
한-러 상생 경험 모델 및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방안

안녕하세요, 이번에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된 채병수입니다.

제가 입학했던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라 거의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후 러시아 현지에서 3년간 근무를 마치고 복학하여, 이번에 입학한 지 6년 만에 졸업하게 되어 감회가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겪었던 러시아·CIS를 학문적으로 다시 접할 수 있어, 저에게는 이 시간이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 교수님들의 폭 넓은 학문적 식견을 접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동시에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부터 발발 이후 2년 반이 지난 시점까지 러시아 현지에 체류했습니다. 이 기간에 공급망의 급 격한 변화를 몸소 체험하였고, 특히 자동차 산업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흐름을 관찰하며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는데, 석사학위 논문으로 완성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논문 작성은 그동안 써왔던 글의 형식과 달라서 적응하고 완성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며 늘 시간에 쫓겨 조급함이 앞섰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늘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응원해 주신 홍완석 주임교수님과 제성훈 주임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이 조언해주시고 부족함이 많은 연구에 방향을 잡아주시며 세밀함을 더해주시는 이상준 지도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업과 학술세미나를 통해 교류했던 원우님들, 그리고 각종 행정 절차를 세심하게 지원해주신 학과 대표님과 조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드립니다.

때로는 지치는 순간도 있지만, 스스로를 믿고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면 모두 원하는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르침과 인연을 선물해 준 우리 러시아·CIS 학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The Impact of Parental Migration on the School Engagement of Left-Behind Children in Kyrgyzstan: A Study Through School Teachers' Perspectives

Amirova
Aisuluu출신학교
오시기술대학교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 문화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게 된 아이술루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지난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학 당시에는 석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도 있었지만, 어느덧 논문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앞두고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뜻깊었던 점은 연구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우논단을 작성하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진행하면서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다른 연구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기에 한국에서의 대학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도교수님이신 이지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연구의 방향을 잡아 주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원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업과 논문 준비 과정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대학원 생활의 가장 좋은 기억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GKS 정부초청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GKS 장학생으로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국제적인 교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언젠가 다시 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 오시게 된다면 언제든지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며 : 졸업자 논문 수기

석사과정 졸업

South Korea's Educational Soft Power in Kazakhstan: An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Regional Reach Gap



**Shaikulova
Aisulu**

출신학교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관심분야
러시아-CIS 지역의 시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을 마치는 샤이쿨로바 아이술루입니다. 입학하던 첫 학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자기소개 글을 쓰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졸업 수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회 깊게 다가옵니다. 지난 시간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었을 뿐 아니라, 인내를 배우고 연구자로서 한층 단단해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서 낯선 환경과 언어 속에서 학업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논문을 쓰며 연구의 한계에 부딪혀 막막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지적인 즐거움,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러시아·CIS 지역을 바라보는 저만의 시각이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경험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연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이끌어주신 지도교수님이신 이지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학위논문 심사에서 연구의 방향을 짚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원 첫걸음부터 늘 격려해주신 학과 교수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통찰과 가르침 덕분에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연구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묵묵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수업을 듣고, 발표를 준비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고민을 나누었던 원우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료들이 보내준 응원과 신뢰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위 취득은 배움의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마침표인 동시에,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연구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쌓은 학문적 자산과 소중한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러시아·CIS 지역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한국과 제 고향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앞날에 건강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국립도서관 (Российск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IV 학과 관련 정보

- 학술 동정
- 2026-1 교수진
- 졸업생 취업 현황

학술동정 교수 동정



제성훈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주임교수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ирового порядка и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used image: Russia and South Korea flags // Internet

© Чже Сун Хун, заведующий Кафедрой росс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Лухонин С.А., 29.04.2026

Развитие и кризис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Россией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более 140 лет назад – в 1884 г. страны заключили Договор о дружбе и торговле. Однако по итогам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1904–1905 гг. они прервались: согласно подписанному с Японией Ульсанскому договору Корея лишилась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После победы СССР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союзн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то время ка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Сеулом на фоне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 раскол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прервалось почти на полвека. В 1990 г.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осстановились, и всего за три десятилетия последствия длительного разрыва были в основном преодолены.

Провозглашение в 2008 г. «отношений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вывел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Сеулом на качественно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а вступившее в силу в 2014 г. соглашение о безвизовом режиме открыло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и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силия двух стран,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асшире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атериализовались в 2021 г., когда объем товарооборота между ними достиг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ксимума, превысив отметку в 27,3 млрд долл.

Однако с началом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2022 г. и присоединением Сеула к антироссийским санкциям, а также последующим включением Юж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йский список «недружеств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началось стремительное охлаждение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 дальнейшем, на фоне поддержки Южной Кореей Украины и усиления е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НАТО,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я Россией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НДР, отношения Москвы и Сеула оказались в состоянии глубочайшего кризиса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 момента их нормализации.

Демонтаж однополярного мира и трансформация мирового порядка

Нынешний кризис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е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как каскадный эффект конкретного инцидента.

2026년 4월 29일 제성훈 주임교수는 IMEMO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한러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최근의 위기,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 관계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였다.

제 교수는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양국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양국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러 사이에 근본적인 역사적 갈등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경제적 이해 충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러시아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기업과 양국을 연구하는 전문가 및 학생 등 지속되는 인적·경제적 교류 역시 향후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관계 설정의 계기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실용성과 상호 국익을 중심으로 한러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026년 6월 18일 제성훈 주임교수는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중·러 비공식 동맹의 장기 지속성과 한국외교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제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발전해 온 중·러 관계를 전통적인 군사동맹과는 구별되는 ‘비공식 동맹’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양국 관계의 장기 지속 가능성과 러시아의 대중 의존 심화, 경제적 비대칭성 등을 주요 변수로 살펴보았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하려는 이른바 ‘역 키신저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며, 미국의 대중·대러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중·러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다.

제 교수는 이어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또한 강대국 간 관계 변화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외교적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의 다변화와 다벡터 외교를 모색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안정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학술동정 교수 동정



홍완석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명예교수

26. 8. 19. 오후 9:13

황기 외교, 실용적 심모원려 필요한 때다 [기고]

문화일보 | 기고

문화일보 입력 2026-03-27 11:22 33번

홍완석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유독 러시아에는 예외이다. 왜 그럴까? 최근의 답론은 대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러 관계의 경색 지속을 규정하는 듯한 전제를 깔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서구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러 관계 복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 제약론이 한·러 관계 결빙의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의 시각은 다르다. 우리의 종합 국력 상승과 국제적 위상 제고가 한·러 관계를 더 근원적으로 규정한다고 본다. 러·우 전쟁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때 정부의 대러 정책에서 가능한 선택지들이 제시될 수 있다.

사물의 역학관계는 언제나 계기를 만나 현상으로 발현된다. 국제질서 대전환의 분수령인 러·우 전쟁이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핵심만 간추리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역적으로 만들었고, 미국·러시아 대러전을 남북한 대러전으로 전이시켰으며, 북·러를 군사동맹으로 재결속시켜 한반도 안보 경직성을 심화시켰다. 한·러 관계로 한정하면, 러·우 전쟁은 양국 간 힘의 역학관계에서 변화를 보였다. 러시아 쪽으로 현저히 기울어 있던 힘의 저울추가 평형 상태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우리의 국력이 괄목상대하게 됐고, 이런 힘의 변화에 기초해 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길항작용을 연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당하게도 러시아의 급소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직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독자 제재까지 단행했다. '최소한'을 넘어선 이런 조치는 한국의 총체적 국력 신장에 따른 고양된 자신감에서 비롯된 바 크다. 한·러 간 전통적인 갑을(甲乙) 관계 변화의 서곡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는 갑의 지위 유지를 위해 곧바로 북

<https://www.moonhwa.com/article/guide/11577824>



홍완석 명예교수는 2026년 3월 27일자 『문화일보』에 「대러 외교, 실용적 심모원려 필요한 때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홍 교수는 해당 칼럼을 통해 대러 외교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대러 외교가 고려해야 할 방향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어 4월 11일에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김대중학술원 4월 연구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연구회의에서는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중동전쟁과 국제정치: 영향, 합의, 대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홍 교수는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의 이란 공격 의도와 그 동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중동 정세와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러시아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견해를 나누며 논의에 참여하였다. 이번 칼럼 기고와 연구회의 참석을 통해 홍 교수는 러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한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를 이어갔다.



홍완석 명예교수는 2026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B3 연구사업단의 김봉철, 라승도 교수와 함께 학술연구를 결산하는 차원에서 에스토니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 거주하는 에스토니아 동부 나르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NATO와 러시아의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안보 환경과 지역사회의 변화를 직접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최근 나르바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친러 성향의 정치·사회적 움직임과 이에 따른 안보적 우려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 사례와 비교하여 그 특징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NATO-러시아 접경지역에서 나타나는 안보 리스크를 현장에서 직접 관찰하고 관련 현안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번 현지조사는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학술동정 제1회 KCI-KASS 차세대 사회과학자 연합학술대회 참석

2026년 4월 4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제1회 KCI-KASS 차세대 사회과학자 연합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생들이 참여하는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지역안보, 사회운동과 언론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특별 세션에서는 우제민 석사과정생이 「러시아 정책결정자의 국가 역할 구상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연담린(국방연구원)이 토론을 맡았다. 발표에서는 러시아 정책결정자들이 인식하는 국가의 역할과 이러한 인식이 대북정책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이어 박상진 석사과정생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양우진(안보경영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표를 통해 유라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다자안보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유지와 작동을 둘러싼 요인을 살펴보고, 역내 안보 질서와 협력의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여진 석사과정생은 「러시아 사회운동과 언론의 프레임 정렬: 2017-18년 반부패재단(ФБК)의 집합행위 프레임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한성민(한국외대)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발표에서는 러시아의 사회운동과 언론이 형성하는 프레임의 관계를 반부패재단(ФБК)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러시아 사회에서 집합행위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번 특별 세션은 석사과정생들이 각자의 연구 주제를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며 연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러시아의 대외정책과 유라시아 지역안보, 사회운동 및 언론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학문적 시야를 넓히고, 향후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학술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학술동정 2026학년도 1학기 인천 학술세미나 개최

러시아·CIS학과는 논문 중간발표를 겸한 교외 학술 탐방으로 2026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인천에서 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1883년 개항 이후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던 인천에서 근대사의 역사적 의미와 흔적을 직접 살펴보고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첫째 날, 학생들은 인천역에서 시작하여 개항장 거리와 자유공원까지 전문 해설과 함께 둘러보며 인천의 개항과 근대사의 주요 흔적을 살펴보았다.

개항누리길과 자유공원은 인천의 개항과 근대화 과정이 남아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학생들은 개항 당시 형성된 조계지와 근대 건축물,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 등을 둘러보았다. 현장에서 들은 해설은 개항장 곳곳에 남아 있는 흔적을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오후에는 한국근대문학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한 뒤, 세미나실에서 석사과정생들의 학술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각자의 연구 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학술 발표회의 경험은 발표와 토론의 주제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을 방문하여 조형진 교수의 특강을 통해 중국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후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방문해 인류 최초의 문자 체계를 보여주는 췌기문자 점토판을 비롯해 세계 각지의 다양한 문자와 기록 유물을 관람하였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역사적 공간을 직접 둘러보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학술 발표를 함께 경험하며,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의 역사와 학문적 주제를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학술동정 제5차 러시아-CIS학과 정기학술대회 개최

제5차 HUFs GSIAIS 러시아·CIS학과 정기학술대회가 2026년 6월 19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러시아의 안보와 경제’와 ‘카자흐스탄의 국가전략과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이라는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회의 ‘러시아의 안보와 경제’에서는 서호수(석사과정 3학기) 원우가 「러시아의 북극 하이브리드전 전략과 안보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시현(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 토론을 맡았다.

이어 이혜나(석사과정 3학기) 원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인적 동원 과정과 사회적 반응」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홍성우(글로벌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황연수(석사과정 4학기) 원우가 「대러 금융 제재 이후 러시아의 통화정책 대응과 환율 안정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유정(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제2회의 ‘카자흐스탄의 국가전략과 미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도 세 편의 발표가 이어졌다. 채지은(석사과정 2학기) 원우가 「토카예프의 경제정책 - 생산국가로의 이행인가?」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소연(중앙아시아학과 강사)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이어 카이롤라 굴자나르(박사과정 4학기) 원우는 「Kazakhstan's Nuclear Turn: Energy Diversification in a Resource-Dependent State (2014-2025)」를 주제로 발표하였고, 고주영(국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이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으로 최종원(석사과정 2학기) 원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전략으로 유라시아 국제 회랑 통제의 역할 - 미국의 對 TATC & TITR 전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김정환(브릭스 전공 특임강의교수)이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러시아·CIS 지역의 안보와 경제, 국가전략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살펴보고 관련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과 전문가가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학술동정 기억의 복원, 비전의 공유 - 러시아·CIS학과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40주년 행사 참석

2026년 6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과 국제관 강의실에서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간 국내 슬라브·유라시아 연구가 축적해 온 학문적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해당 분야의 새로운 연구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회의, 축하공연으로 구성되었다. 기념식에 앞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유라시아 문명적 전회: 전쟁의 기록을 넘어 공존의 기술로’를 주제로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참여해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에너지, 국제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하는 유라시아 지역 질서와 사회·문화적 변화, 국가 정체성, 지역 협력 및 에너지 문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학술회의에는 우리 학과 박사과정생 및 수료생들도 발표자로 참여하였다. 심종현 박사수료생은 「북러 동맹의 복원과 발전: 북한의 단계적 기여를 바탕으로」를 주제로, 김애리 박사과정생은 「러시아 세계(Russkiy Mir)의 재구성: ‘선별적 포용’을 통한 이주 통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자그니비다 빅토리아 박사과정생은 「한국 내 ‘루소포비아’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세 발표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한 러시아의 대내외적 인식과 그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황과 과제를 함께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후 러시아 출신 성악가와 음악가들이 참여한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학술회의에서 다른 주제를 문화와 예술의 측면에서도 접해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간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변화하는 유라시아 정세 속에서 슬라브·유라시아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학술동정 2026학년도 1학기 러시아-CIS학과 하계방학 독서세미나 개최

2026년도 1학기 하계 방학을 맞이하여 러시아·CIS학과에서는 원우들의 학문적 관심을 확장하고 다양한 국제정치 및 지역연구 현안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독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팀별로 도서를 선정해 주요 내용을 발제한 뒤,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사례에 대한 의견과 해석을 공유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독서 세미나에서는 북핵 협상과 미국의 대북정책,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러시아 제국의 역사와 통치 방식,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 및 루소포비아 등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졌다.

먼저 『폴아웃』 팀의 조현준, 최종원 원우는 지난 35년간 이어진 북핵 협상의 주요 전환점을 미국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해당 도서는 대북정책에 직접 관여했던 저자의 경험과 미국·한국·중국·북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정책 결정 과정과 함께 보여준다. 두 원우는 북·미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여러 차례의 북핵 위기와 협상,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의 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적 전환점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해 온 과정을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반복적으로 과대평가한 반면, 북한 내부의 전략적 계산과 행동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책의 문제 제기에 주목하였다. 또한 제재와 압박, 군사적 대응과 외교적 타협 사이에서 미국이 내린 선택이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를 북한의 행동만으로 설명하기보다 미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적 판단, 협상 방식 역시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북핵 협상의 역사를 단순히 성공과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각 시기 미국 행정부의 판단과 선택이 축적되어 온 과정으로 바라보며, 반복된 협상 실패에서 향후 한반도 정책이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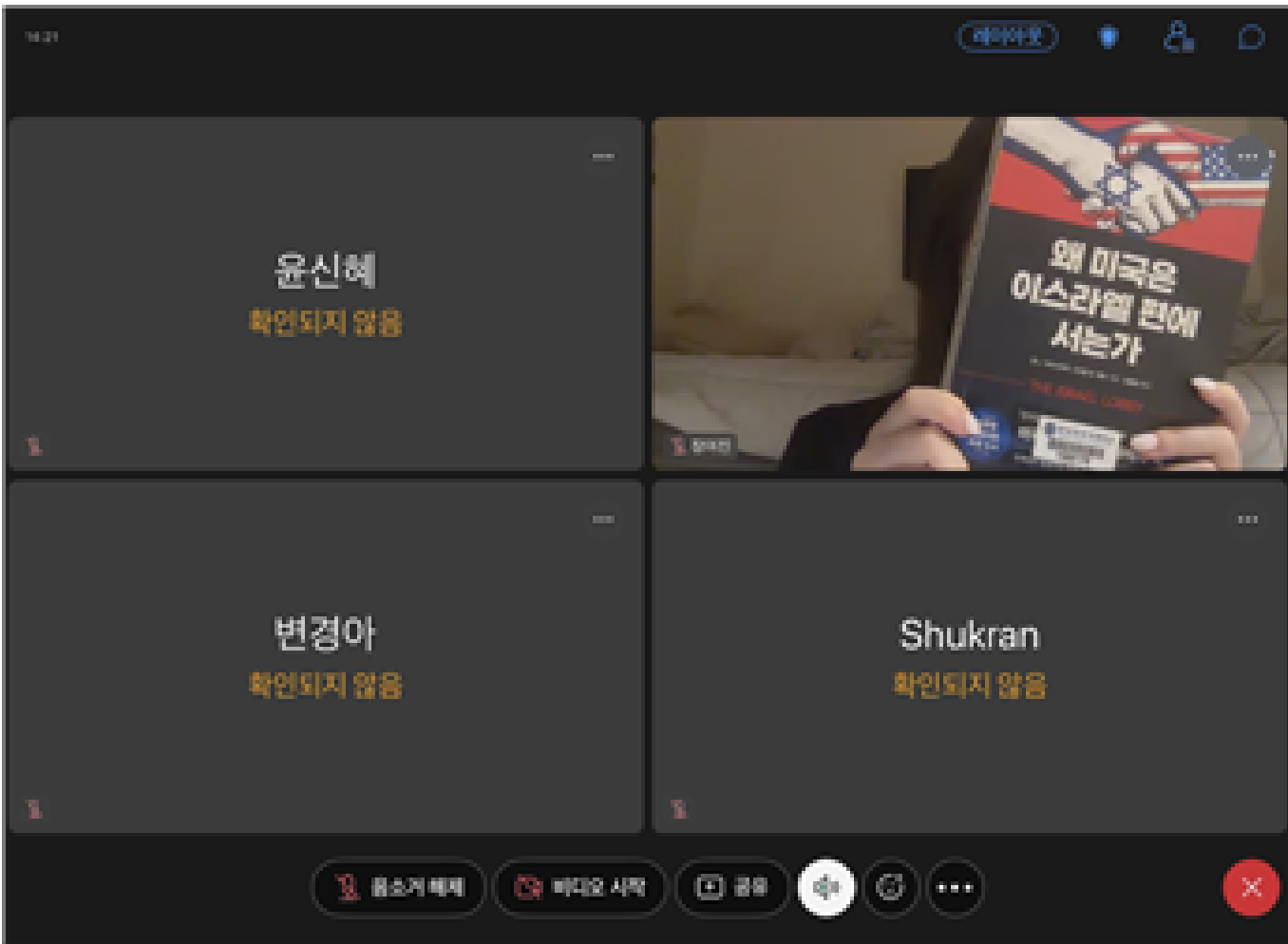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팀의 장여진, 변경아, 신나데즈다, 윤신혜, 정재훈 원우는 “미국은 왜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저자들이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의 원인을 국제체제 차원의 전략적 논리보다 AIPAC과 네오콘 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로비’라는 국내정치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대중동 정책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왔는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미국의 중동정책을 로비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라크와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석유와 에너지 안보, 역내 세력 관계와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행정부의 이념적 성향, 국내정치와 로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아가 현재의 중동 정세를 고려할 때 이스라엘과의 관계 재정립만으로 미국이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로비의 영향력을 배제하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이란을 비롯한 역내 세력관계 등 중동의 구조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저자들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정상적 관계’로의 전환이 미국의 대중동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일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폴아웃』 팀(조현준 외 1인)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팀(장여진 외 3인)



학술동정 2026학년도 1학기 러시아-CIS학과 하계방학 독서세미나 개최

『러시아 제국 연구』를 다룬 팀에서는 김애리, 박성주, 김선아, 최재영, 서호수, 채지은, 손민정 원우가 총 12개 장을 나누어 발제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초기 루스에서 모스크바국과 제정 러시아, 1917년 혁명과 소련, 소련 해체 이후 현대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가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하나의 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국을 단순히 광대한 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이해하기보다, 서로 다른 지역과 집단에 각기 다른 조건을 부여하며 통치하는 하나의 정치적 방식으로 바라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제국’을 영토의 크기보다 서로 다른 지역과 집단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통치의 문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중앙과 주변부, 민족과 계급, 자치와 중앙집권의 관계가 시대별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서도 일정한 연속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오늘날의 언어정책과 재외동포 문제, 나토 확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이러한 장기적인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며, 초기 루스에서 현대 러시아에 이르는 긴 흐름을 종합적으로 조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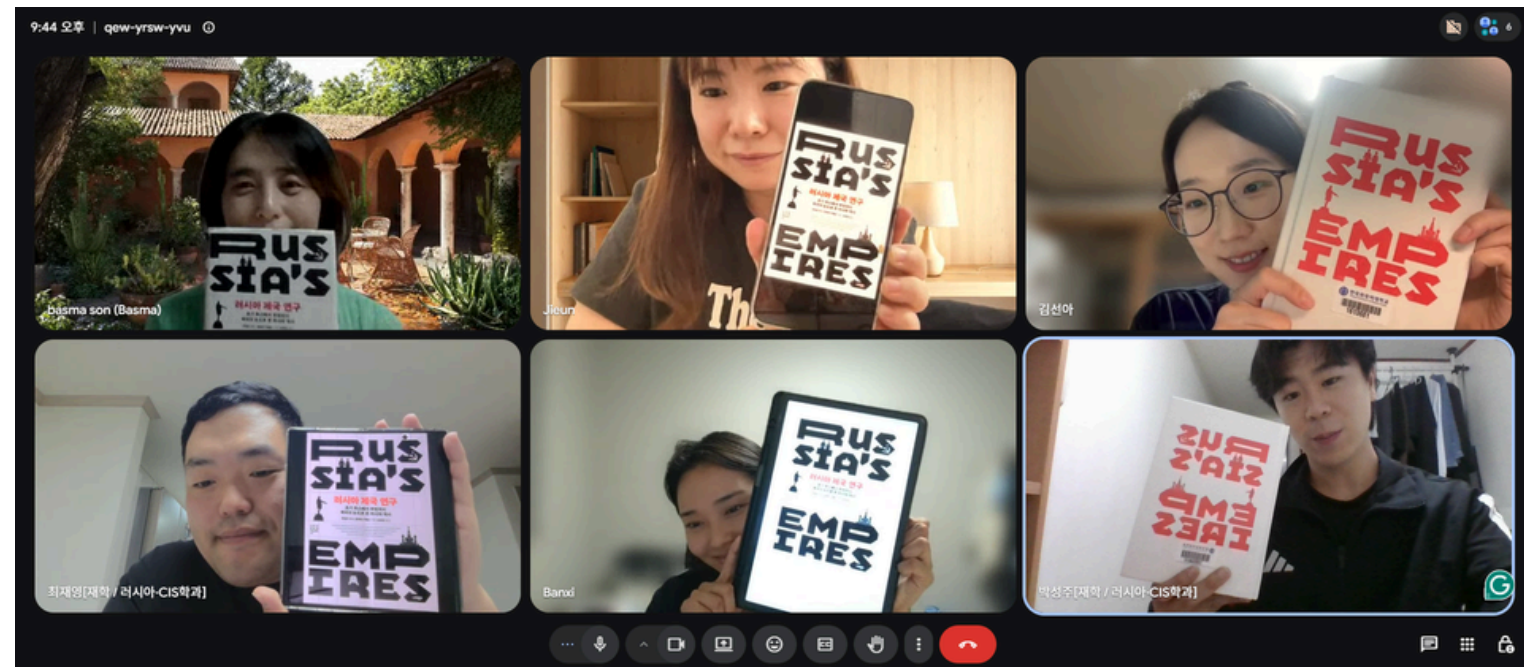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기 메탕의 『루소포비아 - 러시아 혐오의 국제정치와 서구의 위선』을 다룬 팀에서는 러시아와 서방 간에 장기간 이어져 온 반목과 갈등, 그리고 서방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재생산되어 온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과정에서는 먼저 번역과 표기상의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이 학부 과정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문을 살펴본 결과, 러시아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에서 표준적인 표기 방식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기자 출신인 저자가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활용해 서방의 대러 인식과 반러 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서방 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여러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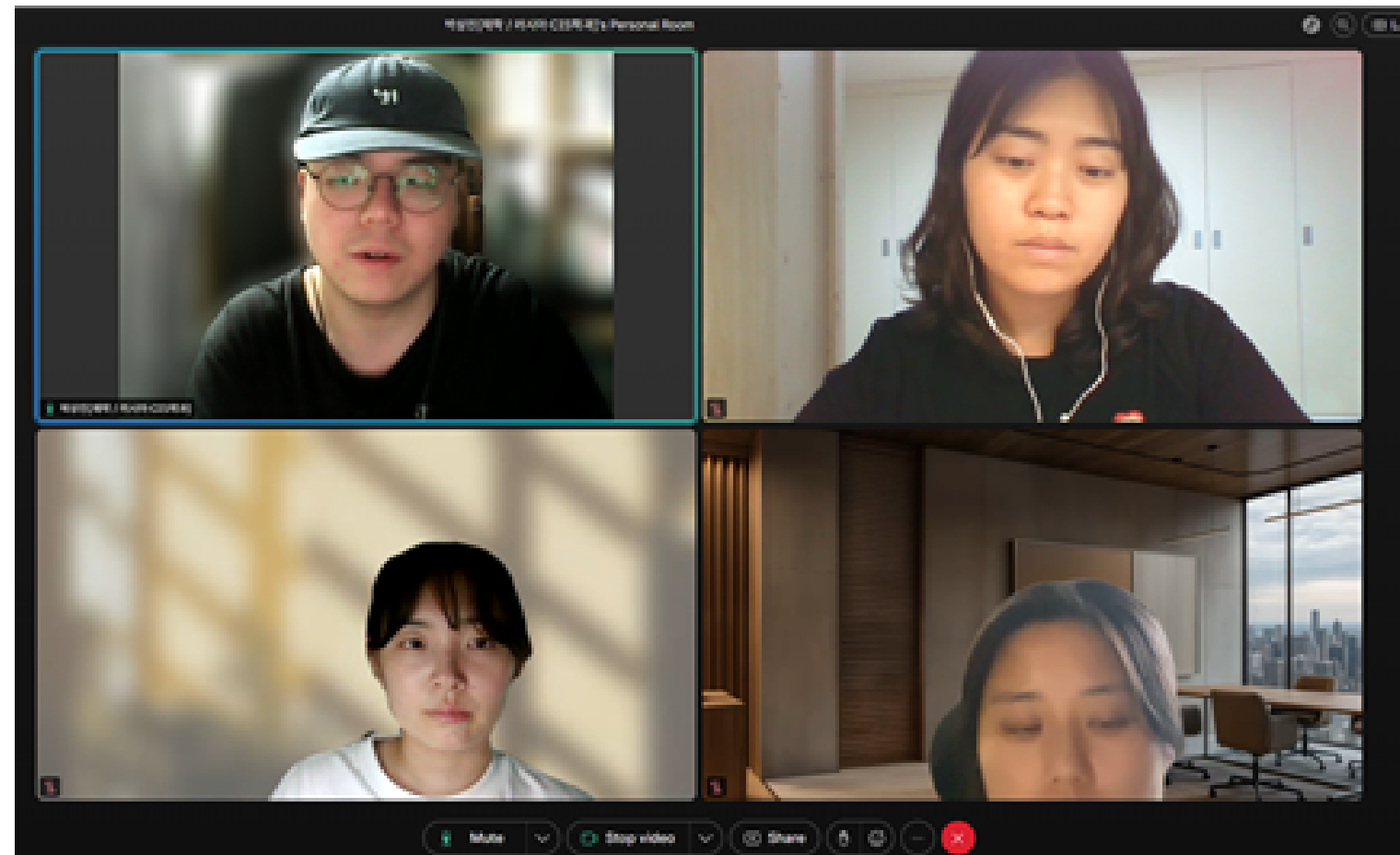
동시에 저서가 서방의 러시아 혐오와 그 재생산 과정을 비판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러시아 측의 행동이 서방의 부정적 인식과 대응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책의 상당 부분이 개별 사례의 제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장점과 한계를 함께 검토하며 러시아와 서방 간 갈등을 어느 한쪽의 시각으로만 설명하기보다, 루소포비아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번 독서 세미나를 통해 참가자들은 각 도서에서 제시된 주장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적 배경과 국내정치적 요인, 국제정치적 환경 및 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독서를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발제와 토론, 비판적 사고와 연구 주제의 확장으로 연결하며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러시아 제국 연구』 팀(박성주 외 6인)



『루소포비아』 팀(박상진 외 4인)



학술동정 RUSSIA·CIS TALK 월간 원우 논단

항목	호	성명	학위 과정	발간 일자	주제
RUSSIA·CIS TALK 월간 원우 논단	Vol.1	박상진	석사과정	2026.1.2	러시아-베트남 관계의 경로의존성: 러시아-중국 관계와 러시아-베트남 관계 비교
	Vol.2	유형진	석사과정	2026.2.3	여전히 식지 않은 ‘러시아의 화약고’, 북캅카스 연방 관구의 어제와 오늘
	Vol.3	Amirova Aisuluu	석사과정	2026.3.3	보이지 않는 문턱: 러시아 이주 아동의 학교 진입 장벽과 소외 실태
	Vol.4	Shaikulova Aisulu	석사과정	2026.4.1	문화의 ‘수출’을 넘어 ‘공진’으로: 한-카자흐 문화 협력의 질적 전환을 향하여
	Vol.5	장지호	석사과정	2026.5.1	전승기념일: 러시아가 민족을 상상하는 방법
	Vol.6	손민정	석사과정	2026.6.2	한국의 대(對) 우즈베키스탄 전력 부문 개발 협력 방안



2026

Vol. 1 2026.01.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러시아-베트남 관계의 경로의존성: 러시아-중국 관계와 러시아-베트남 관계 비교

박상진
석사 과정, 러시아·CIS 정치 전공
sangfin1212@hufs.ac.kr

‘동방으로의 전환’과 베트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는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비서방 국가들과의 협력을 전례 없이 강화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코지레프 외무장관 시기 러시아의 대외 정책은 서방 주도의 세계질서로 편입을 지향했으나, 정책이 실패한 후 엘친 정부가 프리마코프를 외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친서방 정책에서 벗어나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지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동방으로의 전환’(Pivot to the East)이며, 이 시기부터 러시아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와 관계 강화를 도모했다. ‘동방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시기에 중국이 주요 외교 대상으로 지목되었으나, 베트남도 관계 강화 대상이 된 주요 국가 중 하나였다.

소련-베트남 관계의 형성과 발전

베트남은 독립 과정에서 소련으로부터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베트남의 건국 지도자인 호찌민(Hồ Chí Minh)이 1923년 소련을 처음 방문한 후, 소련은 베트남의 독립 및 건국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45년 독립 이후 줄곧 소련과 강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며 군사, 경제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3차에 걸친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은 베트남이 소련이 국제사회에서 유례없는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미국과는 달리, 당시 소련은 베트남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 베트남과의 관계가 특별한 이익으로 인식되지도 않았고,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세력권에 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폭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소련 폭격을 연상시키면서 소련 측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코시킨 총리가 당시 하노이에 머물고 있었는데도 미국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폭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심한 모욕을 당한 것이 되었다. 이후 소련은 미국과의 전쟁은 물론, 캄보디아 및 중국과의 전쟁에서도 베트남 측을 적극 지원했으며, 이에 대해 베트남은 미군에게 노획한 군사 장비 제공, 캄란 해군기지 대어로 보답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련은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을 확보했다.

적대로 전환된 소련-중국 관계

소련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베트남보다 먼저 주목해야 할 국가는 중국이다.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인 1950년 중국과 우호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 군사, 경제, 문화 등 전방위에서 협력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우호 관계는 1956년에 개최된 제20차 소련공산당 당대회를 계기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는 전임자인 스탈린의 개인숭배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는데, 이는 곧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졌다. 소련 내에서 스탈린에 대한 비판이 즉각적인 관계 단절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고, 기본적인 협력은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런 실용적 협력마저 1967년 중국 문화대혁명 발발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후 1969년에 발생한 국경분쟁을 통해 양국은 사실상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며, 이는 1989년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중국 방문과 화해 선언 전까지 지속되었다.

탈냉전기 러시아-베트남 관계

1991년 소련 붕괴에 따라 러시아는 베트남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직후인 2000년 9월 110억 달러에 달하는 대소련 국가부채 중 90억 달러를 탕감하면서, 베트남과의 관계 강화를 시작했다.

[그림 1] 2001년 푸틴의 베트남 국민 방문



(출처: Wikimedia Commons)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으로 중국과 갈등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중국과의 공고한 협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영토 분쟁에서는 중국의 편에 서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와 베트남 간에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졌다.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지대 창설 협정 체결, 2014년 11월 러시아-베트남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러시아 합정의 캄란항 접근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탈냉전기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영향에 노출되었지만,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고려하여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군사적 상황은 러시아가 베트남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협력과 긴장이 병존하는 러-중 관계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시기 러시아는 세계 질서의 다극화 추구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했다. 이후 상하이협력기구(SCO)와 브릭스(BRICS)의 창설과 발전은 러시아가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방과의 경쟁을 주도할 기반을 제공했다.

하지만 양국은 제도적인 군사 동맹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SCO 회원국들과의 군사 협력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같은 러시아 주도의 안보기구와 장기적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을 꺼린다. 따라서 2007년 8월 CSTO와 SCO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러시아의 구상이 중국에 의해 거부되기도 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 여전히 긴장이 잔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러시아는 구소련 지역을 '근의'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패권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세력권으로 주장한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를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러시아의 영향권을 잠식하여,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러시아-베트남 협력, 계속될 일만 남았나?

2023년 4월 팜민찐 베트남 총리는 체르니셴코 러시아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대러 제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푸

틴 대통령은 2024년 6월 베트남 방문 당시 포럼 서기장과 15개에 달하는 다양한 협정을 체결했다.

베트남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인식은 복합적이다. 푸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1%와 6%는 각각 베트남과 러시아에만 이익이 되고, 5%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2024년 당시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 어디인지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7%만이 베트남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반전의 여지는 있다. 2020년 헌법 개정 이후 러시아는 소련에 대한 기억 정치를 외교와 연계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2025년 5월 9일 푸틴 대통령은 포럼 서기장에게 양국의 우정은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고, 베트남 국민의 참전은 양국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러시아는 소련과 동맹 관계에 있던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련 시기의 역사적 경험은 러시아가 베트남을 아시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하도록 만들고 있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ussian Studies Research Center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정성훈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Vol. 02 2026.02.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여전히 식지 않은 ‘러시아의 화약고’, 북캅카스 연방 관구의 어제와 오늘

유형진

석사과정, 러시아·CIS 경제 전공
neorokid@gmail.com

캅카스 지역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문명적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믿는 다양한 소수 민족이 거주하며 그들 간의 충돌이 잦았던 곳으로, 유럽의 발칸반도만큼이나 위험한 ‘화약고’로 불린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에 속한 북캅카스 공화국들은 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과 이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배경으로 끊임없는 분쟁을 겪어왔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존의 위태로운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가 군사·정치적 역량의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하면서, 정작 가장 불안한 변방인 북캅카스에는 심각한 ‘안보 공백’이 발생했다. 연방 정부의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부의 불안과 급진주의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다시금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여러 사건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발생한 일련

의 사태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2023년 10월 다게스탄 마하치칼라 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유대주의 난입 사태는 연방 정부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음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듯 드러냈다. 이어 2024년 6월, 다게스탄의 심장부인 데르벤트와 마하치칼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정교회 성당 및 시나고그 테러는 이 지역이 다시금 ‘통제 불능의 화약고’로 변모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체첸 공화국의 수반 카디로프는 대표적인 친크렘린 인사이자 장기 집권 중인 권위주의 지도자로, 그가 주도해 온 ‘관리된 평화’도 한계에 봉착한 듯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모스크바의 재정적·군사적 지원 능력이 약해질수록 북캅카스의 내부 균열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처럼 북캅카스의 고질적인 불안 요소와 민족·종교적 갈등은 러시아 남부의 주요 안보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오랜 기간 불안정한 치안 상황과 무장 단체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이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우크라이나 전선과 유사

한 수준의 경계가 필요한 남부의 핵심 취약 지대로 평가받는다.

이슬람 중심의 민족주의와 인구 구성의 변화

북캅카스 연방 관구는 러시아 내에서 공화국 비중이 가장 높고, 동시에 러시아인 비율은 가장 낮은 지역이다. 특히 체첸과 잉구셰타야 공화국의 경우 러시아인 비율이 0.7~1.2%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이는 잦은 분쟁으로 인한 치안 불안과 종교·문화적 이질감 탓에 러시아인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표 1] 북캅카스 연방 관구
6개 공화국 민족구성

공화국	주요 민족 구성 비율
체첸 공화국	체첸인(96.4%), 러시아인(1.2%), 쿠미크인(0.8%), 아바르인(0.3%), 잉구시인(0.3%)
잉구셰타야 공화국	체첸인(2.5%), 러시아인(0.7%), 아바르인(30.5%), 안디인(0.5%), 디두인(0.5%), 카라틴인(0.2%), 베진인(0.2%), 레즈긴인(13.3%), 락인(5.2%), 타바사란인(4.0%), 아제르바이잔인(3.7%), 러시아인(3.3%)
다게스탄 공화국	카라차이인(44.4%), 러시아인(27.5%), 체르케스인(12.7%), 아바자인(8.1%), 노가이인(3.8%), 오세트인(0.5%)
카라차예보-체르케시야 공화국	카바르디인(57.1%), 러시아인(19.8%), 발카르인(13.7%), 체르케스인(3.0%), 튀르크인(1.9%), 오세트인(0.8%)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오세트인(68.1%),

공화국	러시아인(18.9%), 잉구시인(3.8%), 쿠미크인(2.8%), 아르메니아인(1.8%), 조지아인(1.0%), 튀르크인(0.6%)
-----	---

(출처: Росстат, (2024).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특히 이슬람교는 이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다. 체첸, 잉구셰타야, 다게스탄 등에서는 주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데, 이는 연방 정부와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다. 다게스탄 등에서는 온건 성향의 ‘수피파’와 급진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샬라프’ 간 내부 갈등까지 겹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러시아보다 중동을 지향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북캅카스의 이슬람 부흥 운동과 이로 인한 잠재적 분리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왔다. 과거 체첸 전쟁 등을 거치며 무력 진압에 주력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법치를 강화하고 지역에 경제적 특권을 부여하는 등 내부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 엘리트층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캅카스의 이슬람 정체성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정치적 사건과 민족적 방향성에 지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 지닌 특수성을 고려한 더 섬세하고 장기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표 2] 북캅카스 연방 관구 내 공화국별
종교 의식 조사(2019)
질문: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로 설문조사

답변	러시아인/러시아어 사용자 주민	카바르디인, 발카르인	카라차이인, 체르케스인	다게스탄인	잉구시인	오세트인	체첸인
정교	84.7	1.5	1.5	0.0	0.0	79.6	0.0
카톨릭	0.4	0.0	0.0	0.0	0.0	1.6	0.0

개신교	0.0	0.0	0.0	0.0	0.0	0.4	0.0
유대교	0.8		0.0	0.0	0.0	0.1	0.0
이슬람교	6.1	93.3	97.0	93.3	100.0	7.0	97.9
위의 어느 종교에도 해당하지 않음	5.3	5.2	0.8	5.6	0.0	8.6	0.5
기타	1.5	0.0	0.8	0.0	0.0	1.6	0.5
모르겠음	1.1	0.0	0.0	1.1	0.0	1.1	1.0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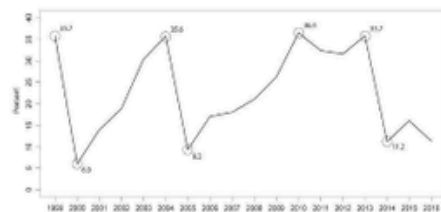
(출처: Дзуцев Х.В. & Бирова А.П. (2019). Уровень религиоз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республик Северо-Кавказск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но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강제 이주의 역사와 억압적 통치

소비에트 시기 북캅카스에서 형성된 민족 갈등의 결정적 원인은 강제 이주 정책과 행정 구역 개편과 같은 인위적 통제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 정권은 나치 독일과의 협력 혐의를 명분으로 북캅카스 민족들을 장벽적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943~44년 사이 카라차이인, 칼미크인, 발카르인 등이 대규모로 추방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자치 단위는 폐지되거나, 명칭 변경 및 구역 재편을 통해 사실상 해체되었다. 이어 1944년 2~3월에는 체첸인과 잉구시인 약 50만 명이 주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당했고, 체첸-잉구셰티아 자치 공화국도 해체되었다. 이들은 1956~57년에 이르러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연방 정부가 새롭게 설정한 인위적인 경계선을 받아 들여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누적된 민족들의 울분과 분노는 1990년대 초 여러 민족 간 분쟁의 불씨가 되었으며, 그 부정적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연방 정부의 대응 방식은 사태를 악화시켰다.

2000년대 푸틴 정권은 지역 엘리트들의 부패를 묵인하면서, 무력 진압에 의존하는 '채찍' 전략을 고수했다. 이는 '피의 복수'를 부르고 급진 이슬람 세력이 자생할 명분을 제공했다. 1999년 체첸 전쟁 이후 연방 정부는 군사적 안정화를 선언했지만,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푸틴 정부의 소치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강경 대테러 전략을 수행했다. 이는 국제적 이목이 쏠린 행사를 위해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물리적 억제에 집중한 결과였다. 이러한 '채찍' 전략은 표면적인 분쟁 건수를 줄이는 성과를 냈을지 모르나, 갈등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그림 1] 북캅카스 연방 관구 내 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비율(1999년~2016년)



(출처: Edward C. Holland. (2018). The decline and shifting geography of violence in Russia's North Caucasus, 1999-2016)

정책의 실패와 '피의 복수'가 키운 북캅카스의 불안정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캅카스 분쟁의 이면에는 연방 정부의 고질적인 정책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 연방 정부는 지역 엘리트들의 부패를 묵인하는 대가로 통제권을 얻는 방식을 취해왔다. 개발 명목으로 지원된 막대한 자금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지도층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고, 이는 공공 서비스의 낙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정부의 공백을 이슬람 기반의 사설 학교와 의료기관, 사리아 법원 등이 대체하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민심 역시 연방 정부가 아

닌 이슬람 단체로 점차 기울게 되었다. 인사 정책 또한 현지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사정에 밝은 인물보다는 FSB(연방보안국) 군 장성 출신 등 측근 인사를 전권 대표로 파견해 '감시와 통제'에만 집중했고, 이러한 일방적 통치는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요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강경 진압 정책이었다. 테러리즘 소탕이라는 명분 아래 행해진 무차별적 폭력은 온건파와 급진파를 구분하지 못했고, 이는 소외된 젊은 이슬람교도들을 무장 저항군으로 내모는 '피의 복수'의 악순환을 낳았다.

결국 북캅카스의 불안정성은 연방 정부의 신뢰 상실, 구조적 빈곤, 그리고 지속적인 강경 진압의 영향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얹혀 있으며, 이는 러시아 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제2의 유고슬라비아'가 되지 않으려면

북캅카스의 지속적인 불안정한 정세는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의 해체가 시작될 무렵, 민족·종교·영토 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발칸을 연상시킨다. 구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 성립한 신유고연방 시기, 지도자 밀로셰비치가 주도한 '세르비아 민족주의(Serbian Nationalism)'는 역내 유혈 충돌을 가속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보스니아 내 이슬람교도를 대상으로 한 인종청소와 대규모 민간인 학살로까지 이어졌다. 정교를 믿는 슬라브계 세르비아인이 이슬람을 믿는 보스니아인과

알바니아인을 탄압했던 이러한 역사는, 정교를 믿는 슬라브계 러시아인이 북캅카스의 이슬람 민족들과 대치하고 있는 현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

사실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기 이전까지, 세르비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들은 비교적 큰 충돌 없이 공존해 왔다. 이는 당시 지도자 티토의 유화적인 소수 민족 정책으로 가능했다. 세르비아계 공산 정권이 수립된 이후 티토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민족 간의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제를 채택하고, 어느 한 민족의 힘과 야망을 제한하는 민족 정책을 구사했다.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 요소와 역사적 요소를 모두 고려했다. 이를 위해 민족을 기반으로 한 각 연방에 영토적 기반을 부여했으며, 비슬라브계 소수 민족에게도 세르비아 가장자리에 자치주를 만들어주었다. 더 나아가 티토는 특정 민족이 국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부권에 기반한 합의 도출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이러한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민족 정책'은 오늘날 러시아 연방이 직면한 북캅카스 연방 관구 내 민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먼저 개별 민족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반으로 명목적인 자치권 부여가 아닌 포용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KORE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USSIAN STUDIES INSTITUTE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학부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재성훈** 감수 ■ **김소연**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a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Vol. 3 2026.03.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보이지 않는 문턱: 러시아 이주 아동의 학교 진입 장벽과 소외 실태

Amirova Aisulu

석사과정, 러시아·CIS 사회문화 전공
989900a@gmail.com

새로운 입학 규정과 공교육 접근성의 제한

2025년 4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는 외국 국적 아동과 무국적 아동의 공립학교 입학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입학 전 러시아어 능력 시험의 의무화와 거주 및 체류 관련 행정 서류에 대한 검증 강화이다. 이 제도는 2024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러시아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와 학급 운영상의 부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의 합격 기준은 러시아 연방 교육감독청 기준에 따라 '만족(satisfactory)', 즉 3점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시행 초기의 진입 장벽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만 3천 건이 넘는 입학 신청 가운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사례는 8,223명(약 35%)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약 5,940명만이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았다. 최종적으로 입학이 허용된 아동은 2,964명으로, 전체 지원자의 약 13%에 그쳤다. 다시 말해, 전체 이주 아동의 약 87% 이상이 공교육 진입에 실패한 셈이다.

입학 거부 사유는 부모가 거주지 등록과 체류 허가 등 필수 행정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동의 러시아어 능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였다. 일부 교사들은 언어 장벽이 완화되면서 수업 운영이 수월해지고 교육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동이 공교육 체계에서 배제될 경우 사회적 고립과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2026년에는 내무부와 학교 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국가 차원의 교육 접근 모니터링과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 아동의 학교 적응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

이주 아동의 학교 적응은 여러 구조적 제약에 가로막혀 있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언어 장벽이다.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 국가 출신 아동의 경우, 가정 내에서 러시아어가 주요 의사 소통 언어가 아닌 사례가 많다. 고등경제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어 미숙은 학업 성취 저하뿐 아니라 또래 관계 형성 실패와 사회적 적응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더해 이주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문화적 차이, 복잡한 행정 절차 역시 아동과 가족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 이주 가정은 거주 등록, 비자, 각종 증명서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 요건에 상시 노출된다. 설령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학교 과밀로 인해 학급 정원이 제한되어 실제 입학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입학 이후에도 차별, 고정관념, 또래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많은 이주 아동이 정서적 불안과 학습 동기 저하를 경험한다. 특히 행동 규범과 교육과정의 차이, 출신국별 교과 이수 체계의 불일치는 학습 결손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교사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다문화 학급이 형성될 경우 교실이 이른바 '다민족 게토'로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는 2025년 제도 도입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통계에 따르면 의무 시험 도입 이전에도 전체 이주 아동의 18~40%가 이미 언어 장벽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주 아동을 위한 적용 프로그램과 정책적 대응

이처럼 엄격해진 제도적 환경 속에서 러시아에서는 이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용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수의 학교는 '적용 학급'을 운영하거나 러시아어(외국

어로서의 러시아어) 수업 시간을 늘리고 있으며, 러시아교육학아카데미 산하의 권고안에 따라 언어 및 사회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개별 학습 계획 수립과 함께 언어치료사와 심리학자가 참여하는 교육 상담이 포함된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한 '환영 학급(welcome classes)' 역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이 먼저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 역량을 습득한 뒤 일반 학급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일부 학교에서는 이주민지원센터와 연계해 동아리 활동, 사회 정서 학습 등을 병행하고 있다.

연방민족문제청과 교육부는 이주 아동 통합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험 응시 이전에 무료 준비 과정을 제공하고, 러시아어 사용 가정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 온라인·야간 학교 등 대안 교육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장기적으로는 적응 센터의 확대와 함께 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 장벽이 초래한 이주 가족 구조의 변화

최근 이주 아동의 공교육 진입은 전례 없이 엄격한 제도적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의무적 언어 시험과 행정 요건 강화는 공교육 진입 장벽을 급격히 높였으며, 그 결과 실제로 학교에 입학하는 이주 아동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표면적으로는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배제 효과를 동반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장벽은 이주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자녀의 러시아 학교 입학이 어려워지면
서, 많은 노동 이주민이 자녀를 출신국에 남겨
두고 교육을 위탁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부모와 분리된
채 성장하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들이 겪는 교육적·정서적 부담은 다시 출신국
사회로 전가되고 있다.

가족 분리는 장기적으로 여러 부정적 결과를
낳는다. 출신국에 남은 아동은 부모와의 정서
적 유대가 약화되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며, 수용국 사회는 미래의 인적 자원이 될
수 있는 이주 2세대를 안정적으로 포용할 기회
를 상실하게 된다. 나아가 가족 동반 이주의
축소는 이주를 불안정한 단기 및 순환적 형태
로 고착화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도 크다.

따라서 이주 아동 통합 정책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가족 정책, 인구 정책, 사회 통
합 정책의 차원에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언
어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입학 단계에서부터 진
입을 차단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
동을 제도권 교육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
을 뿐이다. 성공적인 이주 통합을 위해서는 배
제 중심의 접근에서 포용 중심의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적응 프로그램의 확대, 접근이 용이
한 준비 과정, 다중언어 환경에 대한 교사 연
수, 그리고 가족과의 제도적 협력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교육 장벽은 향후에도 가족 분리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FOREIG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김수 ■ 김소연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Vol. 4 2026.04.01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문화의 ‘수출’을 넘어 ‘공진’으로: 한-카자흐 문화 협력의 질적 전환을 향하여

Shaikulova Aisulu

석사 수료, 러시아 · CIS 정치 전공
aisulushaiku@hufs.ac.kr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대학 강의실과 문화 행
사장에서는 한국어 인사말, K-pop 커버댄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소위 ‘한류
열풍’으로 설명하지만, 일시적인 문화 유행 현
상으로 설명하기에는 그 영향력과 지속성이
상당하다. 교육과 문화는 국가 이미지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이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이해할 수 있다.

나이(Joseph S. Nye)는 소프트 파워를 “강압이
나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매력을 통해 원하는 결
과를 얻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즉, 소프트 파워
(문화, 교육 등)를 통해 국가는 하드 파워(군사력,
경제력)와는 다른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문화 교류는 소프트 파워를 행하는 발신국
의 문화가 수용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수용국
의 언어·정체성·산업 환경 속에서 재해석되고
서 변형되기도 한다. 특히 수용국 사회의 맥락 속
에서 해당 문화가 해석되고 토착화되는 재구성 과
정은 소프트 파워의 지속 가능성과도 긴밀히 맞물

려 있다. 문화적 영향력은 일방적인 전파에 그칠
때보다, 현지 문화와의 접점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상호 작용할 때 그 수용의 폭과
깊이가 확장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때문이다. 한
편 수용국 역시 발신국 내에서 자국 문화를 소개
하며 교류의 접점을 넓히고자 하며, 이는 양국 간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된다. 나아가 이
러한 흐름은 단방향적인 소프트 파워의 전개를 넘
어, 양국 간 문화 교류의 확대를 통해 협력의 질적
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우선 카자흐스탄 내 한국 교육·문화의 확산 경
로와 현지 사회의 재해석 방식을 고찰한다. 특히
현지의 자생적 문화 현상인 ‘Q-pop’(큐팝)과 더불어,
최근 한국 사회 내에서 관찰되는 카자흐스탄
의 문화 알리기 및 교류 행사들은 주목할 만한 변
화이다. 이는 외래문화가 현지 맥락과 결합하여
어떻게 변용되는지, 그리고 수용국 또한 발신국
내에서 자국 문화를 가시화하며 교류의 접점을 어
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같은 변화를 바탕으로, 공급 중심의 일방향적 확
산을 넘어 양국이 함께 지속 가능한 교류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적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카자흐스탄 내 한국 소프트 파워의 확산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소프트 파워의 확산은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먼저, 교육 분야는 세종학당과 카자흐스탄 초·중등·고등 교육 기관 내에서 한국학 관련 교과목 개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세종학당은 이제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수도 아스타나와 경제적 중심지 알마티라는 거점을 넘어, 남부 심켄트와 북부 코스타나이까지 그 지평을 확장한 것이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망이 특정 대도시를 넘어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보편적 현상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세종학당이 한국 문화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카자흐스탄 공교육 현장에 뿌리내린 한국어 교육은 현지 사회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 10여 개 주요 대학에 한국학 및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었을 뿐 아니라, 20여 개 초·중등 학교에서도 정규 수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한국어 교육이 일부 전공생의 학술적 관심을 넘어, 미래 세대 전반으로 폭넓게 확산되며 교육 현장이 새로운 주류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양국 간 인재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한국에서 수학하는 카자흐스탄 유학생 수는 2011년 276명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1,516명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양국의 교류가 단기적인 한류 열풍을 넘어, 장기적인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실질적인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와 맞물려 유학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은, 카자흐스탄 청년층에게 한국이 미래를 설계하는 매력적인 교육 목적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문화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관찰된다. 일례로 2022년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K-pop 커버댄스 챔피언십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76개 팀이 출전하며 그 뜨거운 저력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림 1] 2022 카자흐스탄
K-pop 커버댄스 챔피언십



(출처: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이러한 행사는 단순한 팬덤 활동을 넘어 K-pop이 현지 청년층의 여가와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한국어를 배우는 강력한 동기부여의 점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문화는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외래문화를 넘어, 청년층의 일상과 문화적 실천 속에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이 강력한 문화 발신국으로서 입지를 굳혔음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일방향적 흐름에 따른 '문화적 비대칭성'이라는 과제도 안겨준다. 한국 소프트 파워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전파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호혜적 관계로 진화할 때 비로소 확보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K-pop의 문법을 자국화한 'Q-pop'의 사례와, 한국 사회 내에서 자국 문화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카자흐스탄의 시도는 매우 시사적이다. 이는 일방적 수용을 넘어 양국이 함께 문화를 구축해가는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한류의 씨앗, 카자흐스탄의 꽃으로: Q-pop이 보여준 재해석의 힘

Q-pop은 K-pop의 음악적 형식과 아이돌 육성 시스템, 화려한 퍼포먼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 일맥이는 카자흐어 가사와 현지 청년층의 정체성으로 채워 넣은 독특한 장르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카자흐스탄 내 영향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현지 사회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토착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Q-pop은 단순한 모방의 단계를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의 문법과 카자흐스탄의 민족적 자부심이 맞물려 탄생한 창의적 융합의 산물이다. 최근 Q-pop은 현지 음악 산업의 구조적 성장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청년들에게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구심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점은 Q-pop을 단순한 '한류의 파생 현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Q-pop은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권 아래 탄생했으나, 동시에 카자흐스탄 사회가 자국의 언어와 정체성을 투영해 빚어낸 독자적 산물이다. 즉, K-pop은 현지에 그대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요구를 통과하며 새로운 장르적 형태로 변주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소프트 파워가 단순한 '문화 수출'의 단계를 넘어, 발신국의 문화를 현지에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생산함으로써 문화적 접점을 다 변화하고 공동 생성되는 문화적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글로벌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의미미한 시사점을 준다.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는 세계화된 문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며 새로운 형식이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이와부치 고이치(Koichi Iwabuchi) 역시 초국적 문화 이동이 지역 사회의 '재의미화' 과정을 거쳐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Q-pop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현지의 조건 속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되며 새로운 문화적 표현으로 확장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카자흐스탄 내 한류를 단방향적인 문화 소비의 틀로만 해석하는 것은 현상의 역동성을 온전히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있다. Q-pop 사례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관계가 일방적 전파를 넘어, 수용 사회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매력이 생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방향의 흐름을 보완하고 향후 '상호 호혜적인 문화 교류'로 나아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 내 카자흐스탄 문화의 가시성 확대

카자흐스탄 역시 한국 사회 안에서 자국 문화의 가시성과 매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 내에서 자국 문화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5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카자흐 쿨타이(Qurlytay of Asian Kazakhs)를 들 수 있다. 이 행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카자흐 공동체를 연결하는 동시에,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한국 대중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림 2] 제2회 아시아 카자흐 쿨타이



(출처: The Korea Post)

이러한 움직임은 인적 자원의 이동 경로에서도 그 상호성을 엿볼 수 있다. 카자흐스탄 인재들이 한국으로 향하는 흐름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편

으로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9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카자흐스탄 현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며 언어와 문화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한국의 정부초청장학(GSK) 프로그램과 유사한 이 제도는 한국 청년들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지원 아래 현지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인 것이다. 이러한 장학 제도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단순히 한쪽으로부터 흘리는 구조를 보완하고, 상호 방문과 학습이 가능한 쌍방향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카자흐스탄 또한 상호 이해를 위한 교류 채널의 창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카자흐스탄 문화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카자흐스탄 공공 외교는 한국의 문화·교육 전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독자적인 장르로 변주되거나 새로운 교류 양상이 나타난다. 카자흐스탄 내 K-pop의 영향을 받아 등장한 Q-pop은 외래문화가 현지 음악 산업과 결합하여 나타난 변용의 사례이다. 나아가 한국 사회 내에서 카자흐스탄의 문화적 가시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들도 관찰된다.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 카자흐 쿨타르나 카자흐스탄 정부의 외국인 대상 장학 제도는 자국 문화와 교육 자원을 한국에 소개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자체적인 공공외교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공공외교 사례가 교차하는 지점들은 향후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문화 교류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의 구도는 정책적 지원 투입의 격차로 인해 비대칭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공공외교 전략 역시 투입 규모와 도달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최근 관찰되는 개별적인 문화 현상들이 단발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양국 공공외교의 접점이 확대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구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문화 전파를 넘어, 발산된 문화 자원이 상대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양측의 각기 다른 공공 외교 시도가 유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공동 문화 콘텐츠 제작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다. Q-pop 등에서 확인된 문화적 접점을 실질적인 공동 생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교류는 단순 소비를 넘어 생산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

둘째, 한국 내 카자흐스탄 언어 및 문화 교육 인프라의 점진적 확충이 요구된다. 카자흐스탄 내 한국어 교육 인프라에 비해 국내의 관련 교육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대학 및 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카자흐어와 현지 문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상호 이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필수 조건이다.

셋째, 양국 간 인적 자원을 연계하는 동문 네트워크 및 공동 학술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양국을 경험한 유학 인력을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사회·문화적 현안을 공동 연구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교류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한-카자흐스탄 관계가 일방적 흐름을 넘어 보다 균형 있는 교류 구조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로가 될 것이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EANK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감수 ■ 김소연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Vol. 5 2026.05.01

Russia · 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전승기념일: 러시아가 민족을 상상하는 방법

장지호

석사과정, 러시아 · CIS 사회문화 전공
jjhoho@hufs.ac.kr

매년 5월 9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크렘린 스파스카야 타워(Спасская башня)의 종소리를 시작으로 병사들이 전승기를 들고 '신성한 전쟁'(Священная война)에 맞춰 행진한다. 이것은 거대한 러시아 전승기념일 열병식의 서막을 알리는 장면이다.

전승기념일은 수많은 국가 기념일 중에서도 러시아 민족의 자부심을 고취하는 가장 핵심적인 국가 의례다. 광활한 러시아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모두를 하나의 러시아인으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자, '우리는 하나'라는 소속감이 대중의 머릿속에 다시금 각인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저 관념적인 '상상'에 불과했던 '민족'이라는 단어가 '모스크바 붉은 광장'이라는 현실의 무대로 모이게 하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그림 1] 2025년 5월 9일 전승기념일 행진 시 모습



(출처: Газета.Ru)

무명용사의 묘: 죽음의 국가화

왜 이름 모를 전사들에게 헌화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전승기념일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희생을 넘어, 민족의 이름으로 '조국을 위한 희생'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름도 신원도 알 수 없는 텅 빈 무덤이지만,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의 의미로 채운다.

전승기념일마다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부가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행위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다. 과거의 죽음을 현재 러시아의 애국심과 정권의 구심점으로 부활시키는 강력한 국가 의례다.

**불멸의 연대:
개인 기억의 집단화**

2012년 5월 9일 톰스크(Томск) 지역의 기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불멸의 연대(Бессмертный полк)'는 현재 러시아 전승기념일의 주요 행사로 역할하고 있다. 이는 대조국 전쟁 참여 기억을 위한 전 러시아 거리 행진이다.

불멸의 연대 참가자들은 각자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자기 조상의 사진을 들며 앞으로 나아간다. 참가자 개개인은 조상의 사진을 들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것은 소련의 승리 정신과 모든 선조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진다.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민족 중심의 국가 정체성 형성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불멸의 연대 거리 행진 모습



(출처: РИА Ново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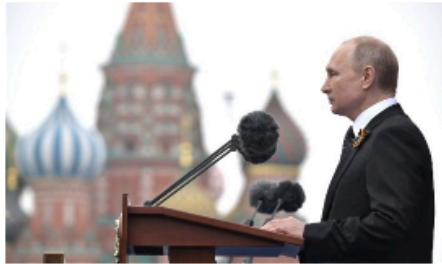
**전승절 열병식 연설:
언어로 이어진 동지에**

전승기념일에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국가 기조를 전달한다. 러시아

국민에게는 인민의 희생과 소련 강대국 지위를 강조하며 역사적 기억을 정치화한다. 대내적으로는 서방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며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 및 위상을 과시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Мы)라는 대명사를 의도적으로 반복한다. 이는 러시아 정체성을 공유하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 지도자 언어의 힘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함께'임을 강조하며 모든 민족을 '형제'로 표현하는 '수평적 동지애'가 형성된다.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것이 형제애 덕분에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민족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림 3] 푸틴 대통령의 전승기념일 연설



(출처: Kremlin.ru)

**성 게오르기 리본:
상징물의 연대감**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성 게오르기 리본(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은 참전용사의英勇적 행적으로 기리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러시아 제국 예카테리나 2세 여제 시기부터 군사적 업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었던 이 리본은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폐지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중 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제국 시대의 상징이 소련의 승리를 거쳐 현대에 부활한 역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리본이 이념과 체제의 변화를 뛰어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러시아 민족'의 고유의 상징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전승기념일을 앞둔 시기, 러시아 각 도시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성 게오르기 리본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준다. 지하철역, 공원, 박물관 등에서 시민들은 무료로 리본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가는 이 상징물의 상업화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리본을 가슴에 달게 함으로써, 과거의 희생에 대한 경의를 러시아 민족이 함께하는 동지애로 끌어낸다.

[그림 4] 성 게오르기 리본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



(출처: РИА Новости)

1분의 침묵: 동시성의 경험

2015년 전승기념일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1분 침묵'(Миниута Молчания)을 식순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본래 이 의례는 1965년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20주년을 기념하며 시작한 것이다. 당시에는 돌아오지 못한 가족을 향한 사적 추모와 그리움의 성격이 강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이 '1분 침묵'은 국가적 차원의 연대를 확인하는 의례로 자리 잡았다. 붉은 광장에 울려 퍼지는 메트로놈 소리는 러시아 전역에 있는 국민이 하나 된 러시아 민족임을 느끼게 한다.

러시아 전승기념일은 '상상된 공동체'가 어떻게 거대한 현실의 힘으로 발현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무대이다.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저서 『상상된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에

서 민족을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단지 '상상된' 공동체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상상'이란 허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서로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이어주는 실질적인 힘이다.

매년 5월 9일, 서로 얼굴조차 모르는 수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전승기념일이라는 거대한 국가 의례를 통과하며 타인을 향한 끈끈한 믿음과 단결을 확인한다. '기억'과 '상징'을 매개로 견고하게 이어진 '우리'는 오늘날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체제를 지탱하는 강력한 구심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회고에서 동원으로:
2022년 이후의 전승기념일**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전승기념일은 이전과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러시아 지도부는 네오나치(Neo-Nazi)의 등장과 서구의 도덕적 타락을 연일 강조하며, 돈바스 지역에서의 '특별군사작전'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맞섰던 성전의 연장선 위에 올려놓았다.

이는 단순한 과거의 승리를 기념하는 의례를 넘어섰다. 현재 러시아가 실질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대중의 내면에 심어주는 장치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전승기념일은 과거의 기억을 무기로 삼아 현재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고,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전시 동원의 도구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승기념일 열병식에 참석하는 외국 정상들에서도 드러난다. 러시아가 구축하고자 하는 초국가적 연대의 흐름이 읽히기 때문이다. 전승 60주년이었던 2005년에는 미국, 독일 등 과거의 적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여 화해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2015년을 지나 2025년 전승기념일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서방 지도자들이 떠난 빈자리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과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한 탈소 비엠티 지역 정상들이 채우고 있다. 이는 러시아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 자신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연대를 과시하려는 시도다. 과거 소비에트 시절 함께 피 흘린 '형제'라는 역사적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러시아는 '루스키 미르'(Русский мир)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전승기념일이 마주한 분열된 여론과 민족 통합의 과제

견고해 보이는 공동체의 내부에서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감지된다. 러시아 여론조사 기관 레바다 센터의 2025년 9월 조사 결과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복잡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 조사에 참여한 1,610명의 응답자 중 우크라이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비율은 약 절반 정도로, 같은 해 5월과 비교해 5% 하락한 수치다.

특히, 정보를 얻는 경로에 따라 관심이 극명하게 갈린다.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보였지만, 소셜 네트워크에 익숙한 25세 미만 청년층의 관심도는 23% 수준에 그쳤다. 분쟁 해결 방안에서도 세대 간 격차는 크다. 전체적으로는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의견이 62%로 우세하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82%에 달하며 전쟁 종결에 대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이러한 수치들은 대중이 느끼는 피로도와 함께 러시아 사회의 이중적인 이면을 시사한다.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여론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점령 영토를 반환하는 조건의 종전에는 단 33%만이 동의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여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국가가 주도하여 형성한 '상상된 공동체'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중은 장기전으로 인한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종전을 원하면서도, 이미 민족 정체성의 일부로 각인된 영토를 포기하는 것에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다. 전승기념일과 같은 지속적인 국가 의례를 통해 1945년의 희생자와 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의 군인들은 '조국 수호'라는 하나의 서사로 묶인다. 그렇기에 대중은 군사 행동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철회를 주저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다가오는 5월의 전승절 행사는 대중의 누적된 피로 속에서 러시아 정권이 체제 결속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사회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권은 붉은 광장에서 전승기념일을 통해 위대한 민족 서사를 반복적으로 주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의 심리적 이탈을 막고 체제의 구심점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후원 ·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 CIS학과

발행인 ■ 제성훈 김수 ■ 김소연 편집인 ■ 장어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

Vol. 6 2026.06.01

Russia · 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단

한국의 대(對) 우즈베키스탄 전력 부문 개발 협력 방안

손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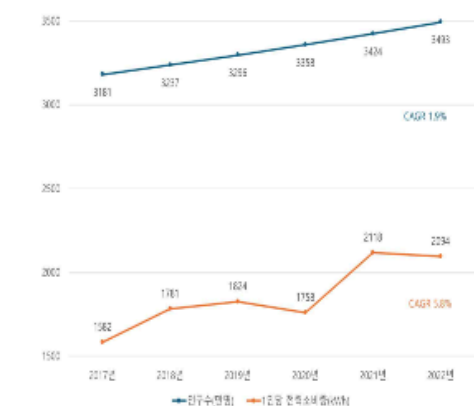
석사과정, 러시아 · CIS 경제 전공
thsals2020@gmail.com

한국의 대(對) 우즈베키스탄 개발 협력 추이

한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국가다. 이와 같은 한국의 발전 모델은 1992년 수교 이후 시작된 대(對) 우즈베키스탄 개발 협력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은 주로 보건의료, 교육, 공공 행정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협력해 왔다.

이와 같은 양국의 협력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인구 보유국인 우즈베키스탄이 50.9%에 달하는 급격한 도시화와 가파른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변화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 내 연간 전력 소비 증가율이 2030년까지 6~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고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 특화된 개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우즈베키스탄 인구 및 전력 소비 현황



(출처 : World Bank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부문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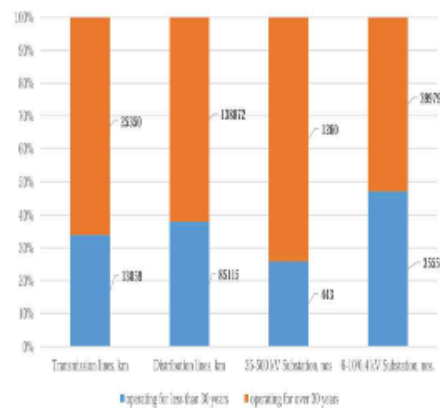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은 천연가스(2023년 기준 75.9%)에 기반한 화력발전소를 통해 5개 지역 단위의 송배전망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송배전 손실률은 2022년 기준 4.5%로, 세계 평균인 6.8%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전력망이 소련 시대에 구축된 시스템(CAPS)과 연계

되어 있어 전력 품질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 보장을 강조해 왔다. 2019년 「Concept Note for ensuring electricity supply in Uzbekistan in 2020-2030」에서는 계통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전환을 주요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전력망 현대화, 계통 디지털화, 수요 관리 체계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송배전 인프라의 현대화이다. 현재 운용 중인 전력망은 설계 수명을 초과한 설비의 가동, 배전망 및 변압기의 높은 마모율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인프라 현대화로 물리적 손실을 줄여야 한다.

[그림2] 우즈베키스탄 송전망 현황



(출처: 우즈베키스탄 정부)

계통 관리 체계의 디지털화도 필요하다. 발전·송배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표시·백업하고, 발전 설비의 전력 흐름과 부하를 최적화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스카다(SCADA) 시스템을 통합·관리해야 한다.

계량기-통신망-운영 시스템이 연결된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AMI) 기반의 수요 관리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과 재

정 자립을 위해 검침 자동화와 정확한 과금에 초점을 둔 지능형원격검침(AEM)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이를 장기적으로 지능화하여 전력 시스템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한-우즈베키스탄 전력 부문 개발협력 현황 및 한계

그동안 한국의 대(對) 우즈베키스탄 전력 개발 협력은 재원의 성격과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2014년 나망간주 팝(Pop)군 태양광 실증단지 건설은 무상 협력의 대표 사례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태양광산업협회가 실증단지의 건설 및 운영을 맡았으며, 한화큐셀코리아가 기자재를 기부하여 태양광 기술과 경험을 이전한 바 있다.

[그림 3] 우즈베키스탄 나망간주 팝(Pop)군
태양광 실증단지 준공식



(출처: 아시아경제)

한국 기업이 다자개발은행(MDB)을 통해 참여한 경우도 있다. 2015년 KT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재원으로 부하라, 사마르칸트, 지자흐에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하고, 계량 데이터 관리·고객 관리·과금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수

원국에 유상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도 있으나, 전력 부문에 특화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은 통상 보건의료, 교통, 교육 인프라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우즈베키스탄 전력 부문 개발 협력 사례를 비추어볼 때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난다. 가장 큰 문제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재원 배분의 제약이다. 지금까지는 해당 기금을 통한 전력 인프라 개선 집중도가 높지 않아, 무상 협력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자개발은행 사업상 한국의 참여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ADB 사업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는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 한정되어 수원국 내 기술 표준 설정이나 운영 구조 설계 과정에서의 영향력 확보가 어렵다.

현재의 개발 협력은 유·무상 및 다자간 시너지를 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개발 협력이 각기 다른 채널로 추진되면서 재원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기술·장비 도입이 전력 시스템 전반의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향후 개발협력의 방향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력망 현대화, 계통 디지털화, 수요관리 체계 구축은 이미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다. 한국은 가스발전 개폐기 기반 변전소 구축, 배전선로 자동화, 고장 분리 및 복구 기술 등을 통해 효율적 운영 경

험을 축적해 왔다. 스카다 기반 통합 계통 운영 체계로 전력 부하, 주파수, 전압 안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2,005만 호에 지능형 전력 계량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실시간 전력 사용량 수집, 원격 검침, 요금 자동 부과, 미수금 감축 등 전력 운영 효율을 개선해 왔다.

한국이 구축한 통합 시스템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표준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양국 간 파트너십 제고를 위해 앞서 언급한 개발 협력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전력 부문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다자개발은행 간 협업을 통한 자금조달도 검토해 봐야 한다. 더 나아가 다자개발은행 내 한국 전문가를 파견해 초기 프로젝트부터 참여할 수도 있다. 유·무상 및 다자 협력을 연계해 무상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술 실증을 수행한 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본사업으로 연결하거나, 다자개발은행 입찰 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올라선 한국의 발전 여정은 우즈베키스탄이 꿈꾸는 미래와 닮아 있다. 전력 부문에서의 밀도 높은 협력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전력 수원국에서 표준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경험이 우즈베키스탄 전력망을 타고 흐를 때 양국의 파트너십은 진정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후원·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관 ■ 러시아·CIS학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발행인 ■ 제성훈 감수 ■ 김소연 편집인 ■ 장여진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acs@hufs.ac.kr TEL ■ 02-2173-2556

※ 본 칼럼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과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학기 교수진 소개



주임교수

제성훈 교수

2026-2 강의명	러시아정치세미나 / 러시아-CIS특강
최종 학위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유라시아 정치 경제 - 한·러 경제협력 - 러시아 대외정책
주요 경력	(현) 러시아-CIS학과 주임교수 (현) 한국외대 노어과 학과장 (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현) 학술지 ‘세계와 유라시아(TWE)’ 편집위원장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장
이메일	jehsh09@gmail.com



명예교수

홍완석 교수

2026-2 강의명	러시아CIS인문및자연지리탐구
최종 학위	Moscow State Univ. of International Relations / 국제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대내외정책 - 동북아 및 CIS 국제관계 - 한·러 관계
주요 경력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현) 김대중학술원 연구위원 - 국방부 정책자문위원(2022~2025)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 (2022~2024) - 한국슬라브학회 회장 (2016),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2015)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장(2014~2015) -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장(2009~2014)
이메일	evan@hufs.ac.kr



전임교수

이지은 교수

2026-2 강의명	중앙아시아국가체제연구
최종 학위	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중앙아시아
주요 경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현) 한-중앙아협력포럼 자문위원 (전)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메일	eurasia@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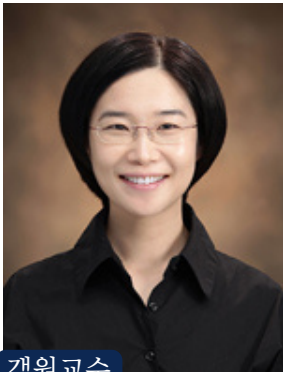


겸임교수

박정호 교수

2026-2 강의명	세계 경제와 유라시아
최종 학위	Moscow State Univ. of International Relations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CIS 정치경제 - 유라시아 국제관계
주요 경력	(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유라시아팀 (현) 통일부 평화통일고문회의 위원 (현) 한-중앙아협력사무국 자문위원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전) 한국유라시아학회 회장
이메일	rodina197601@gmail.com

2026년 2학기 교수진 소개



객원교수

박선영 교수

2026-2 강의명	러시아 문화론
최종 학위	Institute of Russian Literature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문학 박사
연구분야	러시아 문학 및 문화 예술
주요 경력	(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전) 충북대학교 전임연구교수 (전) 충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메일	rodina197601@gmail.com



객원교수

이상준 교수

2026-2 강의명	러시아경제
최종 학위	러시아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IMEMO) / 경제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경제 및 CIS 경제론 - 한러 경제협력 - 유라시아 개발 협력
주요 경력	(현)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 한국 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장 (2018) -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장 (2016~2018) - 삼성경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2015) - 국민대 국제학부장 (2010~2012)
이메일	sjoon@kookmin.ac.kr



객원교수

이대식 교수

2026-2 강의명	산업혁명의 역사와 러시아 경제
최종 학위	서울대학교 / 러시아문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CIS 경제 - 러시아-CIS 에너지 지정학 - 러시아 역사/문학
주요 경력	(현) RIO Institute 대표 (전)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연구실장 (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 연구실 수석연구원
이메일	ds8787@rioins.kr



초빙교수

박병인 교수

2026-2 강의명	러시아와 동북아 국제관계
최종 학위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 정치학 박사
연구분야	- 러시아 대외정책 - 동북아 국제관계 - 안보 및 국제정치
주요 경력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초빙연구원 (전) 미국 듀크대학교 방문학자(2016-2018) (전) 경남대학교 정외과/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2010-2016) (전) 대통령실 외교안보 전문공무원(2005-2008) (전)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학부 강사(1994-1996)
이메일	bipark9@gmail.com

졸업생 취업 현황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1	석사	경제	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	석사	경제	남	(주) 정원아이덴티
3	석사	경제	남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
4	석사	경제	남	LG전자
5	석사	경제	남	LS산전
6	석사	정치	남	LG전자
7	석사	정치	남	해양경찰청
8	석사	경제	남	머니투데이 기자
9	석사	경제	남	(주) 팔도 모스크바 지사
10	석사	경제	남	영산그룹
11	석사	정치	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2	석사	정치	남	국가안전전략연구원
13	석사	경제	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4	석사	정치	남	신성통상
15	석사	경제	남	농협
16	석사	경제	남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국비장학생
17	석사	정치	남	경찰청 외사국
18	석사	정치	남	3C 통상
19	석사	정치	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20	박사	경제	남	해외한민족 연구소 소장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21	석사	정치	남	필룩스(LED조명 업체) 해외영업부
22	석사	경제	남	동북아지자체연합사무국
23	석사	정치	남	한국국방연구원
24	석사	경제	남	외교부 유라시아과 (국립외교원 합격)
25	석사	정치	남	펜타프레스(Penta Press) 매니저
26	석사	정치	남	한국석유관리원
27	석사	사회문화	남	경찰청 외사국
28	석사	사회문화	남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29	박사	정치	남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30	석사	사회문화	남	경찰청
31	석사	경제	남	삼성전자
32	박사	정치	남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
33	박사	정치	남	한국외대 글로벌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34	박사	사회문화	남	코레일
35	석사	경제	남	한국무역진흥공사
36	박사	정치	남	한국국방연구원
37	석사	정치	남	경남 경찰청
38	박사	경제	남	한국외대 강사
39	석사	경제	여	법무법인 율촌
40	석사	경제	여	국방부 군무원

졸업생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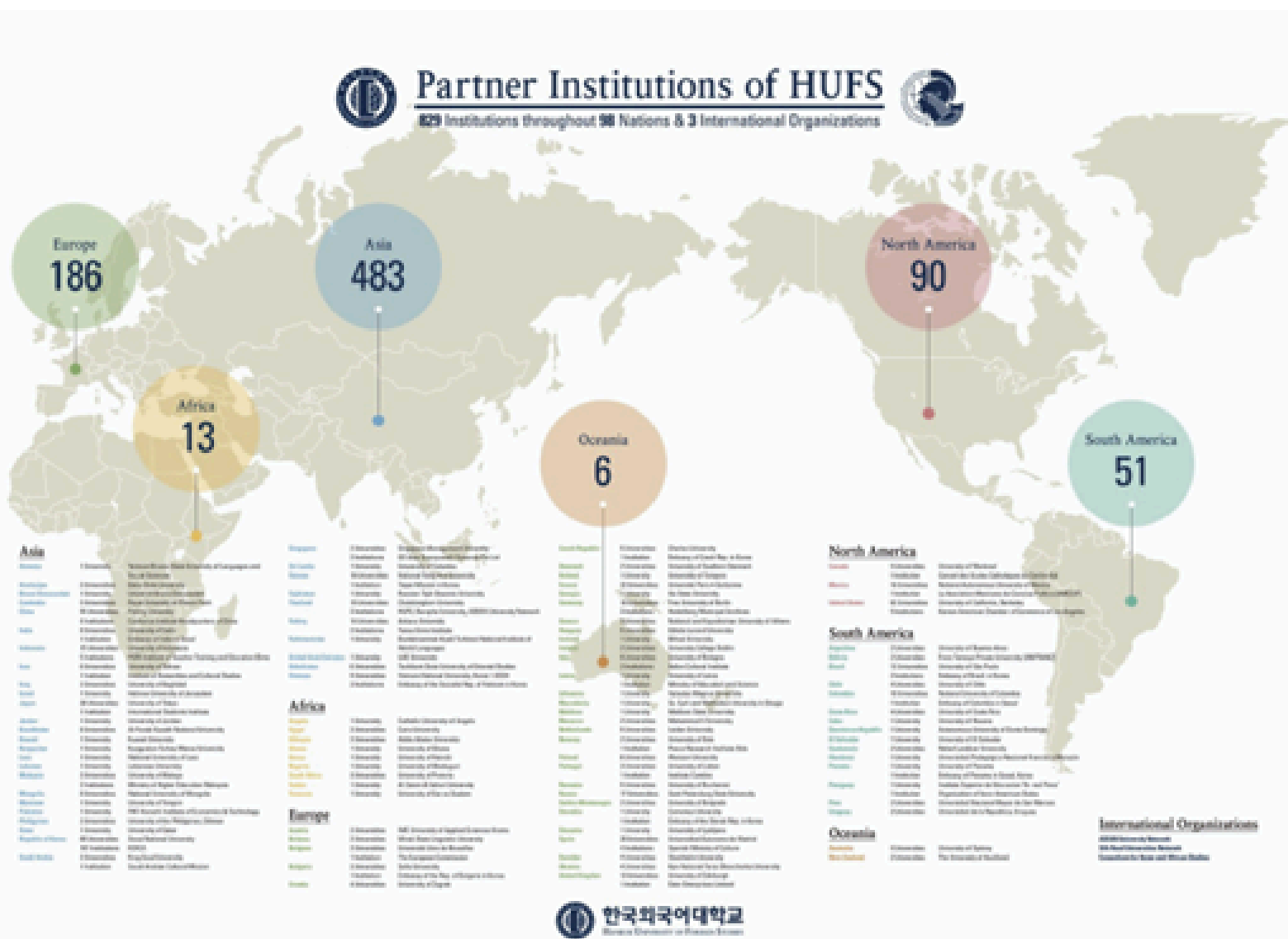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41	박사	경제	여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42	석사	경제	여	모스크바국립대학교 박사과정
43	석사	경제	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4	석사	경제	여	캐나다 에드먼턴 대학교 교수
45	석사	정치	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46	석사	정치	여	한국소비자원
47	석사	경제	여	한국경제신문 기자
48	석사	경제	여	한국예탁결제원
49	석사	경제	여	강원도 공무원 교육행정직
50	석사	사회문화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바롭스크 철도대학 박사과정
51	석사	경제	여	MGIMO / 가스프롬
52	석사	경제	여	University of Colima Ar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53	석사	정치	여	교통개발연구원
54	석사	경제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5	석사	경제	여	삼성SDS
56	석사	정치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연구소
57	석사	사회문화	여	강남구청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 센터장
58	석사	경제	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59	박사	경제	여	한국국토연구원
60	석사	정치	여	해양수산개발연구원 극지연구소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61	석사	정치	여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국비장학생
62	석사	사회문화	여	교육부
63	석사	정치	여	문화재청 미술문화재연구실
64	석사	정치	여	Korail Networks
65	석사	경제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6	석사	경제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강사
67	석사	사회문화	여	외교부(카자흐스탄 전문관)
68	석사	사회문화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69	석사	사회문화	여	한국사물인터넷협회
70	석사	경제	여	CICSFT
71	석사	정치	여	제주평화연구원(JPI)
72	석사	경제	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3	석사	경제	여	(주) 한국석유공업
74	석사	사회문화	여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동방학연구소
75	박사	경제	여	(주) 엘솔루
76	석사	경제	여	통일연구원
77	석사	경제	여	이영 국회의원실
78	석사	정치	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79	박사	정치	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80	석사	경제	여	이태원행정사 합동사무소

졸업생 취업 현황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구분	전공	성별	직장명
81	박사	경제	여	여시재	98	박사	정치	남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82	석사	경제	여	롯데칠성	99	석사	경제	여	엘에프푸드
83	석사	사회문화	여	차병원 기획실	100	석사	경제	여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84	석사	정치	여	신세계푸드 수출팀					
85	석사	정치	여	주한 벨라루스 대사관					
86	석사	정치	여	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87	석사	경제	여	신우밸브					
88	석사	정치	여	카카오픽코마 (주)보이스루					
89	석사	정치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90	석사	경제	여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초빙연구원					
91	석사	경제	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92	박사	정치	남	한신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연구교수					
93	박사	정치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94	석사	정치	여	세종학당재단					
95	석사	정치	남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실무관					
96	석사	정치	남	(주)애드위너					
97	박사	정치	여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국제 교류 협정 체결 대학 및 기관



ЕГРИНА

발행 제성훈
편집 조현준(박사과정 3학기)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 E L 02-2173-2556
홈페이지 ruscis.hufs.ac.kr